

해녀노래 현장과 창자 생애의 사설 수용 분석

- '해녀노래' 보유자 안도인의 노래와 생애를 바탕으로 -

좌 해 경*

차례

1. 서언
2. 공식적인 노동 기능의 표출
3. 개인의 삶의 소재 수용
4. 결어

1. 서언

해녀노래의 생산 주체는 흔히 '잠녀'(潛女), '잠수'(潛嫂)라고 하는 해녀들이다." 해녀들의 삶을 통해 빚어진 생활의 문학으로서, 해녀노래는 발농사(바당밭)와 마찬가지로 바다 물질 작업으로 생계를 이끌어가는 제주 여성들의 노래인 것이다. 바다노동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빚어지는 노동 기능

*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강사

- 1) 산소의 공급장치 없이 자맥질을 하면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여성을 잠수 혹은 잠녀, 해녀로 부르고 있다. 잠수나 잠녀는 행위자/ 내부자의 통속적인 용어이고, 해녀라는 명칭은 관찰자/ 외부자들이 일상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으며 학문적으로도 분석적/ 과학적 용어로 쓰고 있다.(유철인, "제주잠수 : 채집자인가, 물질 담당 계층인가, 직업인인가, 무호흡 잠수자인가" 세계심학회 발표요지, 제주대학교, 2001. 9. 23.) 본고에서는 해녀라는 명칭을 사용하고자 한다.

성으로 생산층이 제한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나, 바다 근처 마을에 살았던 제주여성들 대부분이 해녀 물질²⁾의 경험이 있고, 물질 작업에 입해 오달진 삶을 살아왔으므로 해녀노래는 제주여성이 부르는 대표적인 민요로 볼 수 있다.

노래 기연은 주로 돛배의 네(노)를 저어 섬으로 가거나 출가(出稼)를 위해 육지 부로 배를 저으면서 ‘벧물질’을 나갈 때 부르는 ‘네(노)젓는 소리’와 테왁을 짚고 물에 뛰어들어 ‘굿물질’ 작업을 하면서 부르는 ‘테왁 짚엉 회여가는 소리’로 기능적 특성이 다르다. 그러나 대부분 해녀노래는 ‘노젓는 소리’가 그 대표격이다. 가창형식은 사설을 매기는 선소리와 후렴으로 구성되는 선후창의 형식, 혼자만의 구연으로 이루어지는 독창형식, 그리고 선소리 훗소리 모두가 의미있는 사설을 부르는 교창형식으로 구성된다. 특히 교창형식은 물질을 같이하는 같은 해녀들에 의해 고정된 사설을 모두 이해하고 불러나갈 때 자연스런 구연이 가능하다.

해녀노래는 제주도에서 만 불려진 것이 아니다. 출가 물질 간 해녀들에 의해서 육지부 혹은 일본, 쓰시마에 까지 불려졌다.

제주의 해녀노래를 들어보면 고정된 공식구에 의해 일정한 노래 형식을 찾을 수 있다. 사설과 음악에 큰 변이가 없는 것이다. 그것은 해녀 작업이 공동체에 의해서 행해졌고, 비록 제주의 다른 지역의 해녀들일지라도 출가 물질에서 서로 모여 공동으로 숙식하고, 생활하며 작업했기 때문에 공동의 문화권을 형성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공식적인 노동 기능의 표출로서는 노를 젓는 행위, 노동작업에 대한 기술, 그리고 노동의 목적과 작업 출발과 작업의 시·공적 상황에 대한 것이다

한편 개인적인 정서가 수용되면 창자마다 각각 그 노래는 다양해 질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어둡고 고단한 삶에 의한 비극적 인생관이 표출될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노동으로 역동적 삶을 살려고 하거나 기원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한다.

2) 물질이라는 것은 해녀들이 바다에 들어가 해산물을 따거나 해조류를 채취하는 노동행위를 말한다.

물질노동에 대한 인식은 대체적으로 “노동 중에서 아마 제일 낮은 노동으로 죽지 못해서 하는 것”³⁾이라고 여기는 천한 노동이라는 인식 속에서 창조된 노동문학이라 할 수 있으나, 외부 관찰자가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제주여성들은 강하다”, 해녀노래는 “고난을 극복하는 힘을 지닌 노래들이다”라고 느꼈던 경험적 표현을 종종 듣게 된다.

그러면 실제 해녀노래 창자는 자신의 노래 속에서 얼마만큼 자기를 표현하고, 노래를 인식할까?

본고는 제주도 무형문화재 제1호인 ‘해녀노래’ 보유자 안도인의 생애와 그녀의 노래를 통해 개인의 생애사에서 표현되는 부분이 노래 사실 속에 얼마만큼 수용되는가에 대한 고찰이다.

그것은 공동의 문학으로서 민요의 전승과정에서 자신의 소재가 얼마만큼 수용되어 변이되는가를 살피는 일례가 될 것이다.

해녀노래 현장으로서 복제주군 구좌읍 행원리의 안도인(제주도 무형문화재 제1호)을 중심으로 민속보유단체의 예를 들고자 한다. 창자 안도인(여, 1926년생) 씨는 16세부터 아버지를 따라 물질을 다녔는데, 부친이 직접 해녀들을 모집하고 인솔하는 배임자였다. 그 때 아버지가 테왁을 손수 만들어 주어서 처음 그것을 받을 때는 감명이 깊었다. 부친이 돌아가시자 47세부터 사주로서 해녀들을 인솔하여 7년간 물질을 다녔다. 출가물질 도중에 길가에 버려진 고아들이 불쌍해서 자식으로 데려다 키우는 인간적인 경우도 보여주고 있다. 지금 고령의 나이에도 해녀노래 보유자로서 후배 해녀들과 함께 해녀노래 전수에도 열성을 다하고 있다.

주로 해녀노래 후렴을 받고 있는 김영자(여, 1938년생)와 강등자(여, 1938년생) 씨 역시 노를 저으면서 직접 출가를 했던 해녀들이다. 지금도 물때(물찌, 물끼)가 되면 직접 잠수작업을 한다. 지금은 동력선을 이용해서 노를 젓는 노동기능은 없지만, 자주 해녀노래를 한다고 한다. 그들의

3) 유철인, “濟州 海女の 몸과 技術에 대한 文化的 접근”, 민속학 국제학술회의, 한국민속학회, 1999, p. 37.

출가 경력을 보면 김영자 씨는 18세 때 상군⁴⁾으로 울산에 초용⁵⁾으로 간 후에 26세까지 다녔다. 강원도, 울산, 진도, 소안도, 포항 등을 다녔으며 소안도, 완도, 보길도에서 난바르의 경험도 있다. 강등자는 20세 초용부터 28세까지 출가물질을 했다. 흑산도에서 고동이나 생복을 잡았고 21살에는 울산, 당포에서 천초를 켜다고 한다. 강원도, 거제도, 안면도에서 헛무래⁶⁾를 했으며, 이외에도 아이를 데리고 삼척, 죽발, 울진, 대구, 거제에서는 난바르⁷⁾ 물질을 하기도 했다.

2. 공식적인 노동기능 표출

가. 물질 작업출발

해녀노래의 생산자들이 그들이 일상에서 취한 물질에 관한 제재는 우선 해녀작업 출발과, 해녀작업, 出稼생활에 관한 것이다. 대부분 노젓는 행위가 出稼생활과 관련되므로 이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제재가 된다. 출가는 보통 음력 3월경에 괄암주에 의해 모집된 해녀 20여명 정도가 한 배에 타고 떠났다가 음력 8월 추석에는 환고향을 하게 된다. 주로 종달리, 행원리, 법환리, 위미리의 해녀들이 많이 참가했다.

出稼물질은 경상남도의 부산, 동래, 울산 등지와 경상북도 지역의 구룡포(九龍浦), 감포(甘浦), 양포(良浦), 계원, 대보, 함경도 부령, 청진, 강원도 등의 국내물질과 일본이나 칭따오(靑島), 따아렌(大連), 블라디보스토

4) 해녀들 물질작업의 기능적인 능력에 따라 상군, 중군, 하군으로 나뉜다. '해기상군'은 나이는 비록 어리지만 물질작업이 뛰어났을 때 붙여주는 이름이고 상군 중에서 물질 작업이 뛰어난 해녀를 '고래상군'이라고 한다.

5) 처음 출가 물질을 가는 것을 말한다.

6) 소라 전복, 해삼, 멍게 등을 따는 일로서, 해산물을 채취하려고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허탕치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헛무래'라고 한다.

7) 며칠간을 육지에 올라오지 않고, 배 위에서 만 숙식하면서 작업하는 것을 말한다.

크 등의 국외물질이 있었다. 국외로 나갈 때는 발동선이나 연락선을 탔지만 한반도의 각 연안과 여러 섬으로 나갈 때는 돛배를 타고 열심히 노를 저으며 해녀노래를 불렀다.⁸⁾

다음 노래들은 노를 저어 出稼하는 출발장면이거나 혹은 섬으로 물질 작업 나가는 노동기능이 잘 나타난다. 곧 노래는 노동작업에 이바지하는데, 작업의 조율을 위한 기능으로써 '노동촉진의 효과', '정신적 분발의 효과', '질서부여의 효과'가 있다.⁹⁾

이어사나 이어싸나
 이어싸나 이어싸나
 요네독지 밤바다에
 파도가들엉 궁글리곡
 자그만 여자의 마음
 한구미들어 궁글리네

우리배에	//	선주님아	선주사공
벧머룩만	//	돌려주소	//
우리형제	//	삼형제가	//
들어사난	//	니도맛고	니도야맛고
등도맛고	//	백만서가	//
다맞아간다	힛 //	어기야차	힛 //

우리아베는 춤나무로 지은베라
 춤매새끼 노는 듯이 잘도나간다
 우리아베는 솔나무로 지은베라
 솔락솔락 잘도 나간다

요넛뎡이 뗏을먹고
 둥긋둥긋 술졌는가

8) 김영돈, 『제주의 민요』, 제주도, 1992, pp. 163-167.

9) 김대행, "제주도 민요의 노래인식", 『제주도 언어민속논총』, 제주문화, 1992.

지름통을 먹었으나
벽름통을 먹었으나

뿔배에 노를 저으면서 밤바다를 지날 때는 마음 한구석이 착착하다. 부모형제, 어린자식을 떨어두고 떠나는 마음은 참매 날 듯이, 솔나무로 지은 배에 힘을 붙여놓고 빨리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상쾌함을 느꼈을 것이다. 또 삼형제가 노를 잡고서니 노젓는 동작이 잘 맞아서 모든 일이 순조로우리라는 위안을 갖는다. 그러나 밀려오는 파도는 기름을 먹었는지, 바람을 먹었는지 부풀려져 엄청난 크기로 배 앞을 가로막는다.

나. 노동의 목적

물질은 기본적으로 환금 작물을 채취하는 경제활동이다.¹⁰⁾

노래에 나타난 작업 노동의 목적은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금전, 돈을 버는 것에 두고 있다. 이는 서민 문학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노동요에서는 노동의 목적이 직접 표현된다. 양태나 망건 등의 관망노동요에서도 노동의 목적이 '큰집 사곡 큰밭 시는' 금전을 얻는 것에 있음을 볼 수 있다

어렵사리 모은 돈은 서방님 술값에 모두 나가거나, 회장술 값도 못된다. 그러나 돈에 관한 노래에 나타난 사실은 삶의 극단적인 상황을 표현한 일부 분이고, 출가해녀들의 모은 돈은 상당량 집안 경제에 보탬이 되었다고 한다.

물질을 하는 곳은 '저승길'로 표현되는 데, 두렵고 가기 싫은 곳이다. 두렵고 가기 싫은 곳을 가야되는 운명, 이를 숙명이라고 여긴다면 그들의 의식은 진취적이고 강인하기보다는 체념적이고 순응적이라 할 수 있다.¹¹⁾

또 이러한 비극적 삶의 근원을 자신의 운명 혹은 인생관에서 찾고 있으며, 같은 운명을 지닌 존재로 인식하는 대상은 바로 '어머니'이다. 같은 여성으로서 자기를 낳아 준 어머니는 동성적인 존재이기도 하고 원망의

10) 유철인, 앞의 글 p. 38.

11) 한창훈, "제주민요와 여성", 민속학 국제학술회의(3회), 민속학회, 1999, p. 49.

대상이기도 하다. 이러한 인생관은 자연과 비교하거나 대조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난다. 자연의 질서와 섭리를 통해서 자신들의 인생과의 단절, 혹은 동일성을 통해서 더욱 삶의 비극성이 표출은 강화된다. 또 자연은 자신들의 인생관을 표현하는데, 가장 가깝고 친근한 제재로 등장한다.

설룬어멍 날설아올적
어느바당 매역국먹언
절국마다 날울렴신고
브름불적 절일적마다
궁글리멍 못사는구나¹²⁾

저산천에 푸습새는
해년마다 오련마는
우리야 인생흔번 가면은
돌아올줄 몰라지네

다. 노동기능적 상황-시·공적 배경

노동요의 특징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노동의 상황에 대한 표현이다. 그리고 작업도구나 시간에 대한 인식, 혹은 공간에 대한 인식들이 병렬적으로 나타난다.¹³⁾ 대체적으로 한 배에는 선주, 기관장과, 사공, 화장아 등을 포함하여 15-16명 정도가 타게 되는 데, 배 위에서 여러 날 해녀들이 함께 먹고 자면서 치르는 '난바르' 물질인 경우 노동의 시·공 표현은 더욱 긴요하다. 또한 시간적인 표현은 노동을 독려하는 기능적 성격이 강하다.

한편, 물질의 한계는 특수한 장비를 갖추지 않고 치르는 나잠 작업에서 나타난다. 열두길, 곧 22미터 정도에서 2분 정도 작업하는 초인적인 능력을 갖추었으나, 큰 전복을 따려고 물 속 깊이 들어갔다가 숨이 막혀 죽는 경우도 있어서 물질 작업은 마치 목숨을 건 것과도 같다. 그래서 자신들

12) 김영돈, 제주도 민요연구(상), 일조각, 1981, p. 8의 자료.

13) 좌혜경, 『민요시학연구』, 국학자료원, 1996, pp. 77-78.

은 '흔백상자' 혹은 '칠성판을 등에 지고' '저승질을 왓닥갓닥' 하는 물질
에 임한다고 여기며 이러한 삶의 모습은 비극적이다.

물로야 뱅뱅 돌아진 섬에
삼시 굶영 요물질 환영
흔뽀두뽀 모여는금전
부랑자 술잔에 다들어간다

이여싸나 이여싸나
흔백상지 등에다지곡
가심앞의 두렁박차곡
흔손에 빗창을췌곡
흔손에 호미를췌곡
흔질두질 수지폰물속
허위적 허위적 들어간다

이물에는 이사공아
고물에는 고사공아
허릿대밧디 화장아야
물 때 점점 늙어나진다
쳐라쳐 쳐라 쳐져어

고요흔숨 질게쉬며
지폰물속 들어가니
고동생복은 쌓였건마는
숨이바빠 못호더라

요물아랜 은과 금이 췌렸건만
노픈낭귀 열매로다

3. 개인 삶의 소재 수용

가. 어려운 삶

해녀노래에는 물질의 기능적 특성을 묘사하는 사실과 자신의 정서를 노래로 표현하는 두 특성을 지닌 사실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정서 표출을 담은 사실인 경우는 출가 당시의 심정이나 혹은 가족이나 남편에 대한 그리움, 사랑의 노래, 旅情과 鄉愁를 노래한다. 노래는 비극적이며 염세적인 정서를 표출하는 경우가 많다. 노동의 한계를 인식하거나, 사랑하는 남과의 이별 혹은 자신의 삶에 대한 비탄 등이다.

결혼하기 전 물질작업으로 결혼 혼수를 마련한다거나 출가물질을 다녀와서 발뽀기나 집을 마련하는 경우를 종종 듣는다.¹⁴⁾

어느 해녀 못지 않게 안도인 당시의 여느 제주 여성들처럼 어려운 삶을 살았다. 그녀 역시 출가 물질 상황과 출가물질의 목적은 돈을 모으는 데 있었다. 해녀들은 자라면서도 사시사철 밭농사도 꾸준히 짓고, 물질을 하면서 돈을 모아 가게에 이바지하는 것을 당연하고 당연한 삶으로 인식한 것이다.

그리고 님에 대한 소재인데, 헤어진 남편의 속을 모른다는 것과, 이별하여 아주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남편을 사별한 님으로 소재 전환을 하고 있다.¹⁵⁾ 그래서 자신의 눈물을 일만 간장 다 썩은 물이라고 표현한다. 곧 삶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편이었던 화자는, 어려운 삶을 노래로 달래고 승화시킨 것이다.

산천의 초목은 전라도 제준데
우리야 몸이 지체할 때는 요객지 생활이 어떨소나
고향이 따로있나 정이들면 고향이라

14) 바깥물질을 치르면서 가정경제에 이바지했던 예를 자주 볼 수 있다.

김영돈, 『한국의 해녀』, 민속원, 1999, pp. 388-390.

15) 이러한 점은 민요에서 자주 등장하는 관용적인 표현으로도 볼 수 있다.

고향산천 버려두고 타향땅을 고향삼아 요디오란
말모른 돈아돈아 돈이좋지 않으면은
어느 누굴 믿고서 여기왔나

A	B
때문은	때문은
돈아니민	돈아니민
부모형제	피땀을
다떨어두곡	홀리느냐
울산강산	어기여라
뫼이나좋아	어기여라
부모형제	어기여라
이별을호곡	어기여라
요산천을	이팔청춘
오랏던고	소년들아

불쌍호고 가련호 요예즈덜 시간ㄹ린 요영업이여
아이고도 생각호민 설울러라 불쌍호다

요물속은 지품예품 알건마는
호집살이 임의 속몰라 절색간장 다늑인다

우리님은 어딜가고 아니나 오는고
공동산천 가신님은 호번가난
또다시 돌아올 줄 모르더라

어기야차	쳐라베겨라
저산으로	내리는물은
일만낭첩	다씩은물가
요네우의로	내리는물은
일만간장	다씩은물가
쳐라베겨	쳐라 쳐

나. 의기로운 삶

제주 해녀들의 강인한 삶은 특히 제주남성들의 존재를 약화시켰다. 解 警시에 아낙이 해온 해산물이나 해조류를 날라다 말리는 ‘품중’으로 등장한 남편에 대한 인식과 “해녀의 남편은 집에서 애기나 본다”는 속담도 같은 면에서 해석 가능하다. 김영돈은 제주해녀 노래 사설 속에는 “유다른 삶과 오달진 기개가 담겼으며, 제주 해녀다운 삶의 방법과 어떠한 고난에도 까무러치지 않는 意志를 터득하고 탄탄한 意氣가 표현된다”고 했다.

그 의기는 아마도 고난 극복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극복의 방식은 노동의 기백과, 현실적인 인식으로 혹은 기원하는 여성적 존재로 나타난다.

노젓는 기백과 젓고서 나아갈려는 의지는 해녀들 삶의 에너지를 말한다. 후렴구 ‘쳐라쳐라’ ‘이어싸 힘’, ‘이어싸나 이여도싸나’ ‘쳐라베겨’에서 느끼는 강력한 힘의 원동력은 그들 삶의 고통속에서 나온 것인지도 모른다. 물마루와 생의 ‘마루’는 여기찬 힘으로, 특히 노동으로 극복이 가능한 것이다. 자신의 온 신체를 움직여서 나아가자고 노래한다. 그러다가 배의 장비가 파손될지라도 얼마든지 보수가 가능하다고 자위한다.

ㄹ를ㄹ를 중살르멍
열두신배 설랑겨려
지고야가자 진도나가자
진도나가자 쳐라뒤야

요내착이 부러나진들
대마도산천 울곧은나무
없을소냐 요벤드레
꿨어야진들 부산항구
로프줄이 없을소냐
요내홀목 부러나진들
부산항구 유도야병원
없을소냐

젊은기상 놓았다가
집을사명 밧을사라

그리고 이처럼 적응하는 힘은 그들이 자연과 같이 해 온 노동에서 얻은 교훈으로 자연과 함께 하는 삶의 지혜이다. “모자반 덩이를 집을 삼고, 늘 고개랑 어머니를 삼는다”는 표현은 늘상 같이 해 온 노동 공간적인 특성과 그들이 넘어야 할 가장 고통스런 대상을 가장 친근한 대상에 비유를 하여 더욱 자연과의 합일을 이루려고 했다.

자연과의 불일치가 인간사의 비극적인 특성을 나타낸다면 자연과 합일된 모습에서 강한 힘을 갖고 삶을 살아가게 된다. 창자의 어머니는 어렸을 적에 돌아가고, 부친에 많이 의지하고 자랐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내용의 각편을 즐겨 노래한다. 그래서 개인 독자적인 정서 표출이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 현실인식과 기원

위험한 상황과 맞부딪치고 고난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생기는 것은 ‘주어진 삶’ 곧 노동에 대해 충실하려고 하는 자각과 현실에 대한 정확한 현실 인식이다. 많은 해산물이 바다에 있으나, 다 갖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목숨이라는 것을 ‘담보’ 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순간적 판단이 중요하게 된다. 한번의 실수가 자신의 목숨과 직결되고 죽음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인식은 일상생활의 삶의 표현에서도 자주 나타난다. 가버린 님을 생각해서 무엇하리, 자신의 어처구니없는 생각을 바로잡고 대응한다. 안도인은 헤어진 남편을 멀리하고 재가를 하지 않았다. 늘 생각하는 것은 남편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헤어져서 만날 수 없음을 미리 체념하고 현실적인 삶에 집착한 것이다.

놀다간건 //
 간들잡놈 //
 자다간건 //
 남일러라 //
 임조차 //
 데려간님은 //
 생각하는 //
 내가잘못 //
 알구야두구 //
 속는 것은 //
 여지의 마음이 //(이여도싸)
 근실하다 //

사람의 삶에 있어서 신앙은 상당히 큰 영적인 힘을 갖도록 하고, 어떠한 고난이라도 극복할 수 있게 한다. 특히 제주해녀들은 바다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치르는 물질 작업과 조난에 대한 큰 위험 부담을 가지고 있으며 더불어 해상안전과 해산물의 풍요를 기원하게 된다. 특히 용왕신과 선왕에 대한 신앙심이 그러하다. 요왕신은 바다밭을 수호하며 선왕신은 선박의 수호신이다.

어려운 바다 '사수와당', 혹은 '울돌목'¹⁶⁾을 지날 때에는 수시로 바닷물에 '지'를 드러서 바다가 가라앉기를 바라고, 개인적으로 자신들의 조상이 물과 관련이 있을 경우에도 '지'를 바친다. 또한 공동의 신앙의례로서 영등굿은 해녀들의 기원의례로 손뼉을 만하고 바다에 인접해 있는 어느 마을을 가더라도 바닷가에는 해신에 기원하는 남당, 개당, 돈짓당, 해신당 등이 있다.

노래에서는 기원적 사설이 구체화되어 나타나고 항상 정성스럽고 간절한 태도로 창자 자신의 경험과 마음에서 우러나온 노래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16) 진도와 전라남도 花原반도 사이의 좁은 해협으로 潮流의 빠르기가 심하다.

눈도나 밝은	서낭님아
앞밭로랑	허우치명
뒷밭로랑	거두치명
고동생복	좋은여로
득달하게	하여줍서
쳐라이여도호라	
물아래랑	용왕님아
물우에랑	서낭님아
지어라지어	흔목져라
섬의 가게	

4. 결어

해녀노래의 생산자는 같은 동업의 일에 참가하는 해녀들이다. 물질이라는 공동의 노동 속에서 생성되어 구전되고, 다시 육지 출가에서 같은 지역에서 만나 다시 그 노래들을 공유했기 때문에, 제주도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해녀노래는 동일한 음악과 사설을 공유한다. 그 일에 참가한 경험 있는 제주여성들과 노래를 접했던 일반인들이 듣고 향유했던 해녀노래는 대부분 많은 분량 공식적인 표현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해녀노래 가사에 수용된 창자 개인의 삶은 노동기능보다는 창자 개인의 서정이 표현되는 단락에서 주로 반영되고 있다. 창자 안도인의 일대기와 해녀노래 사설을 비교 분석한 결과, 남편과의 이별로 인한, 그리고 해녀물질 작업의 어려움에서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 노동의 에너지로 그의 기로움을 보여주었고, 자신의 의지가 흔들릴 때마다 강한 현실인식과 기원을 했다. 안도인의 노래 속에서 개인적인 정서가 노래에 다소 표출되더라도 공동의 문학으로서 민요 구성 틀은 크게 흔들리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노동 기능이 강한 해녀 노래에서 개별적인 정서는 아주 일부뿐일 수밖에 없었다.

〈참고문헌〉

- 강대원, 『해녀연구』(개정판), 한진문화사, 1973.
- 김영돈, 『제주의 해녀』, 제주도, 1996.
- 김영돈, 『한국의 해녀』, 민속원, 1999.
- 김영돈·김범국·서경림(1986), 「해녀조사연구」, 『탐라문화』5호, 제주대 탐라문화 연구소, 1990.
- 안미정, 「제주잠수의 과거와 현재」, 『깨어나는 제주여성의 역사』, 제주도 여성특별위원회, 제주도청 2001.
- 이 건, 「제주풍토기」, 제주도교육위원회, 『탐라문헌집』, 1976.
- 유철인, 「濟州 海女の 몸과 技術에 대한 文化的 접근」, 민속학 국제학술회의(3회) 요지집, 민속학회, 1999.
- 유철인, 「제주해녀의 삶-역사 인류학적 과제」, 『깨어나는 제주여성의 역사』, 제주도 여성특별위원회, 제주도청, 2001.
- 조혜정, 『한국의 남성과 여성』, 문학과지성사, 1998.
- 좌혜경, 『민요시학연구』, 국학자료원, 1996.
- 좌혜경, 『한국, 제주, 오끼나와 민요 민속론』, 푸른사상, 2000.
- David W. Plath, *Fit Surroundings*, 『해양문명사에서 잠녀의 가치와 문화적 계승』, 제1회 세계잠녀학술회의 발표요지, 제주도, 2002.
- 마쓰다 이찌지, 「濟州島海女」, 『地理學論文集』, 일본, 1976.
- 마쓰다 이찌지, 「濟州島海女の地誌學的研究」, 『大塚地理學會論文集 二』, 1934.

〈자료 1〉 안도인의 해녀노래

- ◆ 가창자: 선소리-안도인, 뒷소리-김영자, 강등자(앞소리 그대로 반복://로 표시) 다른 사설 부르거나 변화는 그대로 채록함)
- ◆ 조사일시: 2002. 3. 12.

이어싸나
 이여싸나
 이여싸나
 이여싸나
 밋밋한
 물줄에¹⁷⁾
 해풍만 치고요
 허적소리¹⁸⁾ 나는것은
 연락선만
 소리로구나
 처라
 처라베겨
 혼목을젓엉¹⁹⁾
 남을준덜
 허리지덕
 배지덕말라
 놈의나고대
 애기랑배영
 허리아지덕
 배지덕 말라
 우리어멍
 날날적에
 가시나무

몽고지에²⁰⁾
 손애 꿩이²¹⁾
 백이라고²²⁾
 날났던가
 이여싸나
 이여싸나
 요벤드레²³⁾
 끊어지면
 부산항구
 아사이노가²⁴⁾
 없일소나
 요내착이²⁵⁾
 부러지면
 대마도산천
 곧은 나무
 없을소나
 뭇물뭇물²⁶⁾

17) 바다에 일어나는 물줄기
 18) 뱃고동소리
 19) 한 바탕을 저어서

20) 노손이라고도 함. 노를 저을 수 있도록 노 위쪽 끄트머리에 마련된 손잡이.
 21) 손애 못이
 22) 박히라고
 23) 낚싯거루의 노를 저을 수 있도록 배 멩애와 노손을 묶어놓은 밧줄
 24) 삼으로 끈 노끈
 25) 이 노의 상책
 26) 마루인데, 길게 늘어져 다가오는 파도의 등성이

신살르멍 ²⁷⁾	눔을준덜
것어보라	ㄹ를을주라
기신내멍 ²⁸⁾	만리나장상 ³⁴⁾
발버등치멍	벌은닷을 ³⁵⁾
둥둥치멍 ²⁹⁾	죸죸이 사려놓고 ³⁶⁾
ㄹ를지라	어기야차
ㄹ를지라	소리에
이여싸나	배만올라
이여차	가는구나
어기여차	이여싸나
간다더니	이여싸나
왜왔더냐	삼돛돌앙
올고갈길	배질ㅎ기
왜왔느냐	선주사공
요금전이 ³⁰⁾	노님이여 ³⁷⁾
아니라면	붓대심영
울산강산이	글잘쓰긴
어딘줄알앙 ³¹⁾	서울양반
부모형제	노님이여
떨어두곡	사람마다
어린자석	베실을 하민 ³⁸⁾
정들뢰두언	노숙자가
새벽밥ㅎ멍	어디시멍 ³⁹⁾
볼아보라 ³²⁾	의사마다
쳐라쳐라쳐라	병을보면
쳐라베겨	공동묘지가
훈목젓영 ³³⁾	왜생기나

27) 신명을 내면서
 28) 힘을 내어
 29) 치울려 차며
 30) 이 돈이 아니라면
 31) 어디 인 지를 알고서
 32) 볼 때어 보라
 33) 한 바탕을 저어

34) 먼 곳으로
 35) 널리 흘려서 고정시킨 닷
 36) 가지런히 사려놓고
 37) 놀이여
 38) 벼슬을 하민
 39) 어디 있으며

처라 저어라 저어라
 뭉클뭉클
 짓엉가게
 앞의배를
 냉기치자⁴⁰⁾
 우리형제
 삼형제가
 들어사난
 내도맛고⁴¹⁾
 등도맛고
 백만서가⁴²⁾
 다맞아지네
 이여싸나 이여싸나
 가다나오다
 만남님은
 정으로나
 살건마는
 여문여장
 드린님은
 법으로나
 사는구나
 이여도사나
 처라쳐라
 혼목젓엉
 남줄레에⁴³⁾
 열두신뻘⁴⁴⁾
 설랑거려⁴⁵⁾

자리야잘잘
 가는구나
 잘잘가는
 잣나무배가
 솔솔가는
 솔나무배가
 우리야배는
 춤매새끼
 느는듯이⁴⁶⁾
 자리야잘잘
 가는구나
 이여도싸나
 요네독지⁴⁷⁾
 밤바다에
 파도가들엉
 궁글리곡⁴⁸⁾
 자그마한
 여자의 마음
 한구미들엉⁴⁹⁾
 궁글리네
 이여도싸나
 이여싸나
 요물아래⁵⁰⁾
 은과금은
 짚렸어도⁵¹⁾
 높은낭귀⁵²⁾
 열매로구나

40) 넘어서자
 41) 하네와 짓거리 노를 짓는 동작이
 잘 어울려 맞음
 42) 백만사가
 43) 남 줄 때에
 44) 몸에 중요한 열 두개의 뻘마디
 45) 움직여서

46) 나는듯이
 47) 이 내 어깨에
 48) 흔들리고
 49) 한이 깊어
 50) 이 물아래
 51) 짚렸어도
 52) 높은 나무에

우리배에
 선주사공
 뱃머룩만⁵³⁾
 들려주소
 이물에도⁵⁴⁾
 상머를이여
 바당에도
 물머를이여
 요밭안에
 머를없이
 이여싸나
 이여싸나
 이여싸나
 어기여차
 이여싸나
 이여싸나
 이여싸나
 이여싸나
 돈아돈아
 말모른돈아
 개도쇄도⁵⁵⁾
 안먹는돈
 창고망도⁵⁶⁾
 못볼르는⁵⁷⁾
 돈이로구나
 부모형제
 이별을호곡
 울산강산
 빛이좋아
 언제나면

어둑칠월⁵⁸⁾
 동동팔월
 돌아나오라
 가고야싶은
 고향산천
 보고야싶은
 부모형제
 언제나면
 가고나보라
 이여도싸나
 저산천에
 풀잎새는
 해년마다
 소곡소곡
 나는구나
 이여싸나
 이여싸나
 이여싸나
 사름머찌⁵⁹⁾
 약한몸에
 황소같은
 병이드난⁶⁰⁾
 불르는건
 어명이여
 찾는 것은⁶¹⁾
 냉수로구나
 이여도싸나
 어기여차
 어기여차
 이여싸나
 이여싸나

53) 뱃전

54) 배의 앞부분

55) 개도 소도

56) 창구명도

57) 못 바르는

58) 어둡고 밝아 곧 7월이

59) 사람처럼

60) 병이드난

61) 찾는 것은

요벤드레
꿨어아지민
부산항구
아사이노가
없을소나
이여싸나
요네차이
부러야진덜
대마도산천
울곧은 나무가
없을소나
이여싸나
요네홀목⁶²⁾
부러야진덜
부산항구
유도병원
없을소나
은과금은 철물이어
조식벧기⁶³⁾
보배로구나

62) 이 내 팔목

63) 자식 밖에

〈자료 2〉 제주 해녀의 삶과 노래

제주도 무형문화재 제1호, 해녀노래 보유자

- 해녀 안도인(安道仁)의 생애사 -

1. 물질수련기

안도인은 1926년 북제주군 동부지역 행원리에서 태어났다. 행원리는 ‘바람의 땅’이라고 할 정도로 바람 매섭기가 그지없다. 바다로 불어오는 개펄 바람은 한 여름에는 무더운 더위를 싹 실어가지마는 겨울에는 사납기가 해녀들의 벗은 몸에 칼을 에는 듯했다.

그러면서도 땅은 거칠어 대부분의 밭농사는 보리, 조, 콩 이외의 작물은 생각지도 못했고, 바다를 주 생산 무대로 삼아, 바위에 뜬아있는 패나 툄 등은 그들의 반찬인 부식거리가 아니라 주식거리였다. 먹을거리가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다에 가서 풀이나 패를 캐어다가 그것을 나무 장작으로 푹 삶아서 맑은 물에 담그면 붉은 물이 쭉쭉 울어난다. 몇 차례 걸러내고 좁쌀을 넣고서 밥을 하면 그것 역시 별미이다.

그러나 따듯한 봄날, 바닷가에 나와서 해산물을 채취하기 위해 공동으로 모이는 곳 불턱은 그들의 아픔 기쁨을 그대로 전달하는 나눔의 장소가 된다. 어느 날 행원리 어느 불턱가에서 한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고 해녀들은 귀를 기울인다.

도인의 부모도 행원리 다른 집들처럼 주로 어업에 종사했다. 아버지는 배의 선주였고, 어머니는 잠수였다. 도인이 태어나서 4살(1929년)이 되었을 때 어머니는 무슨 삶의 어려움이 그녀를 짓눌렀는지 도인을 버리고 개가했다. 일설에는 상당히 매운 시집살이의 고통 때문이라고 하나, 그 이유는 어린 도인으로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었다.

당시에 도인은 아명으로서 그렇게 특별한 뜻이 없이 ‘빌레’라는 이름을 가졌다. 남들이 ‘빌레’ ‘빌레’라고 부르는 아이는 친어머니가 계시지 않아도 건강하며 장난기 어린 눈을 가진 계집아이였다. 아버지는 선주로서 해녀들을 모아 육

지에 물질을 가버리면 도인은 늘 친할머니의 손에서 자랐다. 당시 부친의 형제 간들은 장남인 아버지와, 숙부가 계셨고, 고모 두 분이 계셨는데, 조카를 아주 사랑하여 놀러 다닐 때에는 데리고 다녔다. 친할머니는 손자에게는 다정한 할머니였으나, 며느리에게는 엄한 분이셨다.

아버지는 남자 혼자 살기가 어려워서 육지에 해녀모집을 하고 선주로 갔다가 옆 마을 한동리 출신 해녀와 재혼을 했다. 친어머니 가까이 없는 도인에게 새어머니는 상당한 기대의 대상이었으나 어려운 삶에 있어서 새로 오신 분은 전통적인 계모상이었던 것 같다.

13세(1938)가 되자 당시에는 마을에 야학이 생겼다. 친구들은 발농사와 집안일을 등을 돕다가도 저녁에는 '복습방'에 가서 한글 익히는 공부를 했다. 도인도 아버지가 울산에 계신 동안 몇 차례 복습 방에서 한글 공부도 하고 이름 쓰는 것도 배웠다. 어느 날 집에 오신 아버지는 무릎 꿇게 하고 다시는 복습 방에 나가지 못하도록 했다. "옛날 여자들은 배우지 않아도 살림만 잘했어. 공부하러 나다 년답시고 남녀가 모여서 갈보 질이나 하고..." 도저히 아버지의 강단(剛斷)을 어찌할 수 없어서 공부라는 것은 해보지도 못하고 그만두게 되었다. 글을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나 결국은 문자 해득의 기회를 잃어서 지금껏 자신의 이름이나 쓸 정도다.

그렇지만 "한글을 깨치지 못해서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은 해 본 적도 없다고 한다. 당시에도 도인은 상당히 물질에 관심이 있었다. 처음 물질을 하려고 하면 부모가 테왁을 만들어 주는 것이 승낙의 징표인데, 아버지는 도인에게 물질도 허락하지 않았다.

새어머니에게 동생이 생겼다. 두달 된 아이를 데리고 어머니는 물질 해녀로, 아버지는 18명의 해녀들을 모집하고 3월에 울산 당포로 나가게 되었다. 이때 도인도 아기업게로 육지에 첫발을 디디게 된다.

울산 당포에서 1년 정도 아기업게를 하면서, 비록 부모가 곁에 있어도 고향의 벗들과 친척들과 떨어져 있는 도인은 너무도 많은 외로움을 느꼈고, 바쁜 부모는 그 심정을 헤아리지 못했다.

새어머니는 물질이 서툴어 뱃물질보다는 주로 꾀물질을 했다. 도인은 세 살 난 동생을 업고 놀면서 주로 집에서 보냈다. 아버지는 소로바구니에 점심을 싸서 아침 일찍 당포에 뱃물질을 가신다. 물질을 다녀오고 배 청소를 끝낸 후, 오다가 탁주라도 한잔 걸치는 날이면 밤 10시가 넘는다. 아버지는 늘 뱃창 가에서

목청 좋은 소리로 ‘이어싸소리’를 하신다. 후렴구에 붙여진 사설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말 꼭지가 있다. 그것은 “설론 설론 나 똥아(서럽고 서러운 내 딸아) 이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부분이다. 곧 아버지는 바다에서 하는 물질 작업이 힘들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도인에게 물질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도 자신이 일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딸에게는 물질작업을 시키려고 하지 않았던 것을 도인은 잘 알고 있었다.

아기와 둘이서 노는 것은 심심하고, 고향에 살던 때와는 너무도 다른 생활에 도인은 힘이 들었다.

같이 물질 간 해녀들은 늘 아버지에게 도인의 심정을 대변해 주었다. “빌레를 할머니 손으로 보내십시오, 너무 어린것이 고생을 해서 안되겠습니다”

어느 날 제주에서 한 해녀에게 전갈이 왔다. 시어머니 임종이 가까웠다는 것이다. 그 해녀는 물질을 접어두고라도 제주로 일시적인 환 고향을 해야한다. 그것은 아마도 배선주가 제주사람이고 고향사람이라 여러 사정을 이해해서 봐 준 까닭이라고 했다. 육지나 일본의 배선주인 경우는 부모 친상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결국 도인은 같은 마을의 해녀를 따라서 다시 제주에 들어오고 할머니의 품에 안기었다. 조상의 품안과 한라산 자락, 늘 상 바라보던 수평선이 보이는 바다가 그녀에게는 안온한 품안이었다.

16세(1941년)가 되자 할머니는 무슨 뜻에서인지 아주 자그만 하고 장난감 같은 테왁과 망시리를 만들어 주었다. 망시리는 한라산 들판에 지천으로 피어있는 억새가 완전히 피기 전에 것(미)을 가지고 꼬아서 만드는 데 나일론 끈보다도 훨씬 질겼다. “도인아 ‘블락통’에 가서 숨비고 물에 드는 연습을 해봐라, 물속에 들어가서 들도 끄집어내어 보고, 듬복도 끌고 나오고 하면서……” 블락통이라는 말은 블락이라는 토종 물고기기가 잘 잡히는 바다이다. 해녀들은 자신들의 물질 경험에 따라서 생산물에 따라 그 바다나 암초에 이름을 붙이고 자신들의 머리 속에 입력이 돼 있어서 어느 바다, 어느 곳에 가면 무슨 해산물이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익혀나가게 된다. 바다 발이나 여 이름은 자연스레 익혀지고 집에 누워있어도 어느 바다에 전복이 꾸물거리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고 한다.

행원리 바다밭에는 미역, 숨, 성계 문게(문어) 오븐작이 많이 나는 더벵이물, 흰돌코지, 큰여, 노락코지, 오저여, 물게낭게가 있다. 서쪽으로 가면 너븐여, 옷너븐여, 알너븐여, 개굴레, 옷만서여, 섯만서 등에는 고동, 해삼, 성계가 많이난다. 외에도 박꺼문여, 셋꺼문여, 방엿여, 앞바당, 지풍개에는 고동과 해삼이 많이 나

고 해산물이 거의 없는 동그랑여도 있다.

친구들과 매일 물에 드는 연습과 물속에서 오래 숨쉬기를 연습했다. 이제 도인의 나이가 되면 어느 정도 두발 정도의 바다물 깊이에 가서 제법 해산물을 채취해 오는 친구들도 있었다. 조상 대대로 하던 생업이고, 잠재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런지 도인의 물질 기량은 나날이 늘었고 어느덧 가슴속에서는 상군 해녀들을 부러워하면서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겨나갔다. 행원리 바다는 생산물이 많아서 해녀들은 행원리 바다가 넓고 좋은 바당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행원리 바다는 다른 지역의 바다를 많이 자신들의 밭으로 만들었다. 도인이 언젠간 나이드는 해녀에게서 들은 말이 생각나곤 했다.

“행원리 사람들은 바당에서 너희들 대(代)까지도 먹을 것은 벌어먹나, 열심히만 하면 살 수 있어, 부모님 것도 공척(것), 형제 것도 공척이라도 물에 것만이 공척인 것은 없다”

겨울 어느날 아침 월정과 행원 경계바다 '지풍개'에 시신이 떠올랐다. 물질 나간 행원리 해녀가 큰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그 쪽을 가리켰다. 시신은 겨울 바다라고 하지만 너무 오래되어서 분명한 얼굴 형태는 거의 남아있지를 않았다. 월정리 주민들에게 연락을 했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해녀들은 남편들과 함께 시신을 물었다. 도인은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물질하다 바다에서 시신을 보면 무섭겠다고 생각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 시신처리로 월정리 마을 밑 가까이 있는 바다가 행원리 바다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안 것은 성인이 된 이후의 일이었다. 그리고 한동과의 경계 역시도 시신처리로 한동에 속해있는 바다인 더뎡이물까지 자신들의 바당밧으로 소유하게 되었다.

바당싸움을 할 때는 그렇게 가깝게 지내던 삼촌들이라 할 지라도 호미로 망사리를 찢으면서 소름끼칠 정도로 무섭게들 싸운다. 여자들 싸움이라 고성(고성)이 오가고 서로 머리채를 쥐어 흔들면서 다시는 생각하기도 싫은 장면들을 연출하는 것이다.

다시 새어머니에게서 동생이 생겼다. 아버지는 울산에 아기업계를 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서 다시 여동생이 생긴 것이다. 그녀들은 육지물질에서 태어나 육지물질로 남편을 만나서 지금도 강원도와 포항에 살고 있다.

도인은 마음 속으로 이번만은 전과 다를 것이라 생각하면서 자신도 아기 돌보는 것이 아니고 물질경험도 해보겠다고 걱정했다. 발동선을 타고, 수평선을 지나 제주 바다를 넘어 갈 때 바라보는 한라산은 전에 없이 온 섬을 바다로 뒤집

어 쓴 것만 같은 느낌을 받았다. “나는 섬사람이야, 섬은 바다로 둘러싸여 물질을 하지 않으면 살수가 없어, 나도 꼭 상군이 돼야지”하고 섬사람으로서의 인식을 처음으로 해 본 것 같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도인도 이제는 해녀들의 무리 속에 끼어 들어 제법 농담을 하며 잘 어울렸다. 한편, 선배 해녀들이 부르는 ‘이엿싸소리’가 귓전을 맴돌았다. 행원리에서는 해녀노래라 하지 않고 ‘이엿싸소리’라고 부른다. 선배 해녀의 노래를 귀기울여 들어보았다. 발동선을 타고 갔지만, 자신들의 어머니에게서 배운 노 젓는 소리를 울적할 때면 목청이 좋은 해녀가 선소리를 매기면 배에 탄 해녀들이 전부 “이엿사 이엿싸나”하고 후렴을 붙이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물질을 하지 못하도록 했고 아기엄게만을 하라고 시켰다. 아마 아버지는 도인이 어려서부터 물질을 하는 것을 그렇게 바라던 것은 아닌 것 같았다. 그러나 도인은 언제 나도 저들과 함께 물질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조바심이 났다.

“아버지 저도 물에 들어갈게요”

계속해서 올라대는 성화에 못 이기어 아버지는 드디어 허락을 했다. 그 당시 울산 당포에서는 첫달이 울자마자 배가 출항하여 ‘개번지’라는 곳에 가서 천초(우미)를 캐려고 날이 채 밝기도 전에 물에 들어갔다. 그러나 우리 배는 해녀들을 정성스레 돌보는 아버지가 날이 밝아야 물 알(밑)이 보이므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시었다. 도인네 배의 해녀들은 아침해가 동편을 붉게 물들인 후에야 물에 들어가 작업했다. 해녀들 대부분은 물속옥과 물적삼, 물수건, ‘족세눈’을 쓰고 물 속으로 침병침병 뛰어 들었다. 족세눈은 주로 한동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동네의 과거 명칭인 ‘갯동네’에서 빌어와 ‘괘눈’이라고 불렀다.

아침 바다의 맑은 공기와 바닷물의 차기가 온몸을 싸하게 한다.

도인은 먼저 테왁을 던져서 그것을 짚고서 살그머니 물 속으로 기어들어갔다. 제주 바다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물의 깊이가 얕아서 처음 물질하는 사람에게겐 덜 겁이 났다. 우미를 잔뜩 뜯고 나왔더니 동네 해녀 한 분이 뜯은 우미의 삼분의 이 이상을 다시 바다로 던져버렸다. 도인은 소리쳤다. 물속에 들어가서 숨을 참고 뜯어 낸 우미를 다시 바다로 던지다니…….

우미에도 개우미, 참우미가 있어서 던진 것은 필요 없는 개우미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참우미를 한웅큼씩 부조를 해주어, 도인도 다른 해녀들처럼 망시리가 그득했다.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

4. 5월에 시작된 ‘우미기연’은 7월까지 작업을 한다. 그리고 도인도 그 해 열

심히 우미를 하여 돈 몇푼을 벌었다. 그래서 그 이듬해부터는 아버지를 따라다니지 않고 자신이 직접 출가물질을 벗들과 함께 다니기로 결심했다.

18세에는 당포 '뒷벌르매' 라는 곳에 물질 작업을 갔다. 남의 배를 타고 친구들과 함께 '출가' 라는 것을 한 것이다. 물질은 아직도 미숙했으나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좋았다.

보리쌀을 조겐 곱쌀과 흐린 좁쌀, 모인 좁쌀 꾸러미들을 가지고 갔다. 선주 네가 집을 빌어서 방을 내주었는데, 한방에는 3-5명이 들어갔다. 그러면 서로가 양식을 같은 분량으로 내놓고서 밥을 해먹고 기거를 하게 된다. 아침이면 특별한 반찬 없이 된장에다 밥 말아먹고, 물질하다 배가 고프면 배 위에 등그렇게 모여 앉아서 화덕 불을 사른다. 그래서 몸을 녹여가면서 술에는 된장을 뒤흔 풀어서 끓여가며 거기에 조 팥 덩어리를 넣는다. 고프 배를 채우기 위해서는 죽처럼 된 먹이일지라도 남보다 한 수저라도 더 뜨려고 서로 눈치를 보아가며 먹는다.

일이 끝나 집으로 돌아오면 특별하게 할 일이 없으므로 하루의 피로에 지쳐서 미리 잠자리에 드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노래로써 시름을 달랜다. 주로 부르는 노래는 해너노래이나 타령 류에 자신의 신세한탄을 담은 신세타령을 하게 된다.

19살 때 물질 갈 때는 동네 언니들을 따라서 구룡포로 갔다. 여객선을 타고 부산에 간 다음, 차를 타고 구룡포로 갔다. 강원도 구룡포에는 도대바당이 유명하다. '도대'는 등대라는 의미이다.

수심이 아주 깊었다. 이제는 도인도 어느 정도 기량이 능숙해져서 너댓발 깊이는 거뜰했다.

아침 그때 중신 온 김씨 집안의 남자 큰 누님이 같이 물질을 가게 되었다.

"우리 오래비는 도인을 아지망으로 해야되는데……"하고 늘 도인의 물질기량과 부지런함에 감탄하여 이렇게 말하곤 했다.

그 당시 번 돈은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으나 아버지에게 드려서 아버지 용돈으로 쓰고 아버지는 다시 돌려주겠다고 했으나 그 뿐이었다. 도인은 돈의 가치는 아직 모르고 있었는데, 돈을 번다기보다는 일을 한다는, 또는 친구들과 어울려 생활한다는 그것이 더 좋을 뿐이었다.

그래서 17~19살 때에는 독립적으로 전라도를 중심으로 물질을 하였다. 부모의 손에서 벗어나서 다니는 물질이 도인에게는 한결 자유롭고 마음 편했다.

2. 물질 상속기

19세(1944)가 넘어서자 도인은 어느 지역, 어느 장소에 가더라도 물질에는 자신이 생겼다. 두발 정도 던 물질이 세 발, 네발까지 물 속으로 들어가서 해산물을 캐 올 수 있는 기량을 가질 수 있었고 해산물도 남보다 수량이 많아갔다. 그리고 출가물질도 전라도 지역, 여수 소안도 지역뿐 아니라 강원도까지 나갔다.

그 해 출가물질을 갖다가 팔월 추석쯤에 집으로 돌아오자 부친이 결혼을 하라고 종용했다. 그때는 보통 중매결혼으로 중신애미가 있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흔했다. 그 해는 두 곳에서 중신이 왔다. 둘 다 김씨 집안이었으나, 한 곳에서는 다시 전갈이 오기를 신랑이

“북한 쪽으로 넘어가게 되어 장가가러 오지를 못한다”

라고 전갈이 왔다는 것이다.

다른 편은 지금 남편이었다. 남편은 같은 행원리 출신으로 키가 크고 얼굴이 흰칠하고, 넉넉하게 보이는 호남형의 남자였다. 시어머니의 말에 의하면, 서너 곳에 중신을 해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래서, 마침 같은 동네에 건강하고 튼실한 신부감이 있다고 해서 도인의 아버지에게 청혼했더니 두말없이

“사주만 맞으면 아무렇게나 하시지요”

등갑내기로 같은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서로 얼굴도 잘 알고, 대강 성격도 파악하고 있었으므로 도인은 김남규라는 청년이 싫지만은 않았다. 당시에 혼담이 오고가는 것은 어른들이 알 바이므로 본인의 뜻은 펴 볼 수도 없었으나, 결혼해서도 남자가 싫으면 그 날 밤에 도망갔다 든가, 육지 물질을 갔다가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 첩으로 드는 경우도 흔했다고 한다.

혼담이 오고 간 이후부터는 길가에서 만나면 부끄러워 얼굴도 들지 못하고 피해서 도망가기도 했다고 한다. 곧 혼인 날짜가 잡히고 그 해 음력 12월 28일에 결혼이라는 것을 했다.

행원리 김해 김씨 집안은 과거에는 행원리에서 최고의 집 자리를 가질 정도로 먹을 것도 있고 재산도 어느 정도는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남편이 7살 나던 해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홀어머니와 독자인 아들만이 있는 가정으로 단촐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말은 좀 많았으나 아주 인정도 많고, 며느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었다.

시어머니는 도인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나는 31살에 남편 죽고 지금껏 홀로 살았다. 남편이 병이 나자 큰곳, 작은 곳하며 온갖 재산을 팔면서 살려고 애써보았으나 운명은 재천이라 어쩔 수가 없더구나, 아들 하나 믿고 살았다. 너는 나보다는 낫다, 나는 너만 믿는다”라는 말을 자주 뇌까렸다. 그 말이 울든 그르든 간에 도인에게는 상당히 고무적인 말이었다.

혼수라 하더라도 가정이 어려웠고, 도인이 벌여 놓은 돈도 부모님이 전부 써버렸기 때문에 단지 이불 한 채와, 요, 베개, 요강 정도였다.

남편은 이불과 요를 퍼면 “내 발이 나오겠어” 하고 농담했다.

사실 그랬다. 남편은 키가 크고, 이불은 짧아서 남편의 신장을 다 덮지 못한 것이다

어떻든 결혼해서는 남편이라고 부르고 서로 옷 걱정, 밥걱정을 할 정도의 관심이 대상이 되는 정도로 관계가 얼마간이었다.

도인은 봄이 되면 출가물질로 육지로 나가야되고 남편은 일본과 부산을 오고가는 밀감 무역선을 탔다. 그래서 비록 결혼이라는 것은 했지만 두 부부는 생활경제를 위해 각자 자신의 일터에서 나름대로 활동했다. 당시 제주府的 어느 부부들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오붓한 신혼의 기간이라고는 찾아 볼 수도 없었다.

그런데 결혼을 하자 도인의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울산 당포에서 연락선을 타고 출가물질을 갔는데, 입덧이 나고 온몸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도인은 아기를 갖는다는 것이 한편 기쁘기는 했으나, 아기로 인해서 자신의 일인 물질작업이 방해나 되지 않을까 하여 여간 걱정이 아니었다. 어느 정도 살림에 보탬돈이라도 마련되어야 하는데, 무역선을 타는 남편은 아주 사람이 실한 편이어서 받은 월급 중 50전 정도의 돈을 비정기적으로 부쳐왔다. 그러나 그 돈만으로 비록 딸린 식구가 얼마 안되더라도 살림살기에는 힘이 부치는 일이었다. 그래서 비록 첫 애라 할지라도 이번 아기는 그렇게 바랐던 바가 아니었다. 그래서 유산이라도 되어버렸으면 하고 배의 맨 앞쪽 이물에서 바다로 퐁퐁뚱뚱 몸을 던졌다. 당시 사공으로 같이 갔던 박 하르방은 도인의 이러한 행동을 나무랐다.

“귀한 아기는 잘 키워야 하는 법이여”

이듬해 8월 초열흘쯤에는 남편이 이불과 아기 옷을 사고 제주에 왔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지금 큰이들을 낳았는데, 다시 육지로 기별을 붙이자 얼른 와서 자신의 핏줄을 확인하고, 보고 곧 돌아 갔다.

그리고 이듬해 다시 임신이 되어 장녀 김미순을 22세에 낳았다.

아이들을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구룡포 바다에 물질을 갔다. 7명의 잠수가 미리 예약이 되고 갔는데 일이 생겼다. 우미가 아직 자라지 않아서 한 보름이나 20일 정도를 거기서 쉬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같이 간 해녀들은 바당이나 돌아 보자고 난리이다. 서로들 테왁을 들고서 바다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우미가 있나 없나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그 바다는 물우미가 바다 위로 등등 뜨는 곳인데, 우미가 전혀 보이질 않았다.

가지고 간 쌀은 동네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하자 6-7군데 꾸어준 상황이었다. 도인은 “너네 머리들 써라, 전주 손에 잡혀서 여기서 허송 세월하는 것보다, 다른 바당으로 도망치는 것이 어떠냐?”

꾸어준 쌀도 있고 해서 남아서 기다리자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망치자는 의견도 있었다. 결정은 도망치자는 쪽으로 났다. 구룡포에서 목 섬까지 산길을 났다. 새벽 1-2시에 나서서 목섬에 이르자 거의 동이 터 올라오고 있었다. 목섬에는 고향사람들이 많이 물질 와 있었다. 그래서 숨어 지내기가 쉬웠고 다른 곳으로 가고 싶은 사람들은 다른 데로 갔다.

도인은 용신내로 갔다. 거기서 고향 6촌 오빠의 배를 타고 우미를 했다. 9명이 한 배를 타고 우미 작업을 했는데, 초등은 거기서 보고, 중등은 목섬에 가서 우미를 해서 3층을 했다.

물질을 하며 고생을 하면 그 돈이 전부 손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때 목섬에 가서 우미 세 층을 한 돈은 6촌 오빠가 “누이야 제주에 가 있어라, 돈을 받아서 주마” 하고 약속했으나 그 뿐이었다. 제주에 돌아오자 내년에 주마하더니 영영 받지 못하고 말았다. 다른 사람들도 육지 전주들에게 돈을 먹혀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23세(1948)가 되자 온 마을이 벽적거리면서 수선을 떨고 있었다.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을 들었으나 채 실감나지 않았다.

남편의 친구들이 와서

“남규야 너는 객지로 가라. 산에 올라 다닌 적도 없고, 서북 청년들과 어울려 나쁜 짓도 안 했으니, 우리는 갈 입장도 못되고, 아지망(아주머니)만 가라도 하면 뻘뻘하다가, 나중에는 너라도 살아남아서 복수해줘라”

어머니도

“애야 머느라 우리 남규를 육지 부산으로 보내볼게(보내자)”

그래서 남편을 살리는 길은 차비를 채워서 아예 육지로 보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쌀과 옷을 준비했으나 배가 없어서 나가지를 못하는 것이다. 도인은 걱정하다가 당시 서북청년이었던 오빠에게 부탁을 했다.

“차비랑 양식을 준비하고 이 밤과 저 밤사이에 ‘한계목’으로 와라, 부산으로 가는 배가 있는데, 배를 예약해두마”

남편을 떠나보면서도 도인은 아무런 감정이 없었다. 남편을 보낸 후 남편의 책과 사진을 모두 불태워버렸다. 혹시 남편의 흔적을 보고 내놓으라고 때 거지라도 하면 큰 일이기 때문이다.

생이별의 슬픔도 잠시였다.

밤에는 서북 청년들이 총을 들고서 마을에 들어왔다. 무조건 사람만 보이면 총으로 쏘아 죽이고 칼로 찔러 죽이는 것이다. 미순이를 업고 부엌 고팡 속에 숨었는데, 그만 아기가 울어 아기의 입을 수건으로 틀어막았다가 하마터면 숨이 막혀 죽을 뻔했다. 뒷날 아침 날이 밝았고 여전히 태양은 여느 날처럼 떠돌아왔다. 온 마을이 피 냄새로 뒤덮였다. 이제 잘못하다가는 온 식구가 다 죽고 말일이었다. 도인은 시어머니에게

“어머님 정봉이랑 어머님이 맡으십시오, 나는 미순이를 젖병을 입에 물리고 길에 버려 두고, 나 혼자 만이라도 숨어 살쿠다. 내가 살아 있어야 다시 자식을 낳을 것 아닙니까?”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딸을 버리겠다는 말이 나왔다. 그때 시어머니는

“안 된다. 자식을 버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고, 자식이 서녘이 되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시어머니는 큰손자인 정봉이를 데리고 마을 윗 편에 있는 굴속에서 숨어 살았다.

며칠 뒤에 마을에, 어디에서 온 전갈인지는 모르나 소식이 왔다.

“살 사람들은 모두 월정으로 가라”

많은 사람들이 옆 마을인 월정리 공화당에 모였다. 그러자 모인 사람들을 벽쪽으로 돌아서도록 하면서 총으로 팡팡 쏘아버리는 것이 아닌가. 한편 월정리 마을 사람들은 행원리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을 했다.

도인은 다시 행원으로 넘어왔다. 그런데 아들을 데리고 월정으로 간 시어머니가 오시지 않아 월정 쪽 노랭이동산을 오고가며 가슴 졸였다. 한참 있다가 어두운 그림자가 나타나 자세히 보나 아들을 업고 시어머니가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

“어머니”

“너도 살았느냐, 우리는 강변 아래 숨었다가 도망왔져”

며칠 후 반장, 조합장, 마을 유지들을 공회당에 모이라고 했다. 아무 영문을 모르고 간 사람들은 담으로 돌아서라고 하는 말에 죽음을 예감했다. 2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눈앞에서 총을 맞고서 쓰러졌다. 너무나 처참한 비극이었다.

창자들은 다 나와있었고 다 죽지 않은 살아있는 신경으로 팔과 다리들은 흔들거리고 있었다.

어느 날 남편 친구가 찾아왔다. 자신을 숨겨달라는 것이었다. 고향에서 숨기고 8일 동안 밥을 해서 먹었는데, 어느 날 밖에 나가 행불 되더니 10일만에 주검으로 돌아왔다. 그때 똑똑한 행원 사람들이 다 죽고 말았다. 서북청년들은 “우리는 죽어도 같이 죽을 것이므로”라는 찬가를 부르며 지붕 위를 날아다니듯 다니면서 마치 미치고 날쌌 개처럼 이리저리를 돌아다니다가 보이는 사람을 마구잡이로 죽였다.

사건이 지나갔다.

마치 악몽을 꾸 느낌이고 살아있는 자신이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비극적인 이야기를 남기고 사라져갔기 때문이다.

다시 도인은 무슨 일이 일어나서 지나간 것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물질 작업에 열중해야 했다.

세 살 난 아이와 금방 태어난 아기를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강원도 ‘비야진’이라는 곳에 미역물질을 갔다. 바다 온 천지에 미역이 시꺼멓게 깔려 있었다. 우리 행원리 해녀들이 그 바다에 들어서 작업이 끝난 후면 마치 밭에 무성한 잡초라도 맨 것처럼 아주 시원하고 깨끗하여 흰하다. “동촌 해녀들이 앉았던 곳은 풀도 안 난다” “해녀 아긴 사흘만에 젓(음식) 먹인다”라는 말이 실감났다.

그 해 4월에 전보가 날아들었다. 아버지가 병이 위중하다는 것이었다. 각주 임자가 “깨끼아지망, 제주는 너무 멀고 또 딸이니까 가지 마시오”라고 했다. 도인은 “아버지 장사를 치르면 오겠소”하고 약속하고 돌아와 보니 아버지는 병명도 모르고 돌아온 날로부터 7일만에 돌아가셨다. 강원도서 연락이 왔다. 도인은 돌아가지 못하겠다고 해서 연락을 부쳤다. 동생들도 어려서 아버지 3년 상은 도인에게 맡겨졌다. 시집생활, 친정에 큰 일이 생기고 남편, 자식 등의 여러 일상사가 도인을 힘들게 했다. 과로와 신경쇠약으로 도인은 그만 열병에 걸리고 말았다.

그 후유증은 머리털이 하나씩 빠지기 시작하여 온통 빠져서 대머리가 되고 말았다. 너무도 창피해서 도인은 머리에 모자를 눌러쓰고 다니고 자신의 흉칙한 모습을 보면서 사람살이의 진정한 의미를 거기서 찾기도 했다.

24세 되던 해 충무 통영에 물질을 갔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던 남편은 통영에서 살림을 차리자고 찾아왔다. 일본에 돈벌러 갈려고 뱃삿을 지불하고 떠 날려고 했으나, 경찰관에게 잡혀서 세 번씩이나 차비만 날렸다는 것이다. 찾아온 남편은 반 거지 상이었다. 얼른 시장으로 간 도인은 삼베 천을 사다가 짧은 바지와 반소매 저고리를 만들고, 구두와 모자, 내의 등을 사다 주었다.

통영 사랑도에서 두 달 신혼살림과 같은 꿈 같은 세월을 보냈다.

“여보 나는 당신이 좋아, 다시는 일본에 갈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어”

당시 통영 역시 어수선한 사회였다. 도인은 곰곰이 생각해 봤으나 이 곳 육지에 와서 잘못 살다가 사건이라도 휘말리면 시댁이나 제주사회에서도 책임은 도인에게 전가되는 것이었다. 다시 남편에게 확인하면서 물어보았다.

“여보, 차비 없다고 하지말고, 차비는 빌려서라도 일본에 가고 싶으면 가는 편이…….”

마침 행원리 장하르방이 일본으로 갈 사람들을 모집하고 배를 주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남편은 크게 부정하지도 않았다. 도인은 얼른 시삼촌 댁에 가서 돈 5,000원을 빌려서 장하르방에게 넘기고 남편과는 생이별이 시작되었다.

배를 타고 남편을 일본으로 보낸 도인은 한편 외롭다기보다는 우선 자신들을 자신의 손으로 키워야 된다는 책임감이 온몸을 덮쳤다. 언젠가부터는 남편과 떨어져 살아야만 하는 운명을 예감하기도 했다.

일본에 들어간 남편에게서 일주일만에 잘 갔다고 편지가 왔다. 이 편지는 남편으로서 개인적인 정을 주고받은 마지막 서신이었다.

이후부터는 한번도 소식이 없었고 20여 년 동안 무소식이었다. 인간은 냉혈동물은 아니지만, 그 냉정함은 어느 짐승과도 비교할 수 없었다.

3. 상군 해녀기(25세~)

가. 뱃물질의 재미

도인은 30대엔 주로 육지에 출가를 하면서 뱃물질을 했다. 곧 한뼘 동아리의 잠수들이 배에서 주로 기거하는 데, 단지 밥을 해먹을 때는 인근 육지에 배를

대어서 밥을 해먹고 잠을 잘 때는 자갈밭이나 백사장 등에서 약간의 뜨대기를 의지해서 눈을 붙여 잠을 자곤 했다. 이러한 생활은 단지 괴로움만의 연속은 아니다. 늘 배 위에서 생활하고 영업을 하면서 살아가는 뱃사람들이 동지와 같은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상대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동료의식 같은 것이 있다. 이것은 단지 어부와 해녀가 각각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들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해녀들은 지나가는 고깃배에 손을 치고 장난을 걸면 어부들은 잠은 고기들을 반찬거리로 던져주고 서로 장난으로 농을 걸곤 하다가 지나간다.

해가 누엣누엣 바다로 잠기면 해녀들은 물으로 올라와 솔에 쌀을 넣고 밥을 하기 위한 준비로 야단들이다. 먹을 수 있는 물을 떠오고, 돌을 이용하여 솔떡을 앉히면서 나무나 지푸라기들을 주어다 붙을 땀다. 좁쌀을 넣고 만든 좁쌀밥의 향기가 일큰하다.

전라도 '넙도바당'에는 고등어가 많이 난다. 여기서 난 고등어를 여수로 혹은 충무로 팔러나간다. 어부들이 고기를 잡다가 해녀들이 보이면 한사람 당 다섯 개정도 썩 반찬 하라고 던져준다. 좁쌀 밥에 고등어 구이 맛이 일품이다.

그 날은 고등과 생복을 많이 잡았다. 잡은 물건을 부산에 팔러 가고 있는 데, 고등어를 잡던 어부들이 손을 친다.

“치를 돌립서”

“저기서 뭐라고 합니다”

해녀를 실은 배가 고등어잡이를 하고 있는 배 쪽으로 키를 돌려서 가보니 엄청나게 많은 고등어가 잡혀있었다.

“여수나 충무까지 한 번만 고등어를 실어다 주면 그 값은 톡톡히 하겠소” 선주는 상황을 보고 거절할 수가 없어서 해녀들을 섬에 퍼두고 고등어를 여수에다 실어다두고 돌아왔다. 많은 고등어를 얻고 돌아온 후 채취한 해산물을 부산에 가서 팔았다.

얻은 고등어는 소금이 없어서 간을 할 수가 없었다. 마을로 들어가 고등어와 소금으로 물물교환하여 고등어를 소금으로 간을 한 후 계속해서 반찬으로 먹었다. 그때 너무 먹어서 고등어 반찬은 보기만 해도 신물이 날 정도였다.

섬에는 파종하는 농작물이라고는 정해져 있다. 특히 고구마라든가, 땅콩 등이다. 부식 거리라든가 먹을거리가 바다에서만 생활하던 사람들에게는 제한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고구마가 굵어지게 되면 남의 고구마를 캐다가 찌먹는 것

도 별미이다. 배를 섬 가까이에 대면 해녀들이 가서 고구마를 캐다가 뱃사공과 약속하여 싣고 바다로 떠버린다. 그러면 감쪽같이, 고구마 주인에게는 들킬 일도 없다. 또 섬 어느 집에서도 귀한 장작을 해서 쌓아둔다. 섬에서 불때기 위한 장작은 정말 귀하다. 주인 몰래 그것을 훔쳐다가 다시 배에 싣고 도망 나와서 다른 곳에 가서 밥을 해먹곤 했다. 주인에게는 미안한 일이었으나 어떤 도덕적인 회의 없이 장난으로 훔치는 그런 일들을 종종 했다.

도인은 너무 겁이 많았다. 그래서 본인은 직접하지 않고, 해녀들에게 눈치만 준다.

“저 곳에 고구마 밭이 있더라, 고구마도 먹고 싶지?”

하면 어린 해녀들이 어느새 사공과 약속하여 당장 시행하고 만다. 육지물질에서 이러한 일은 재미있는 일 중의 하나로 손꼽힌다. (남에게 말하기에는 창피하지만)

또한 이런 일이 육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 있는 미역과 같은 해산물을 캐어오는 경우이다. 곧 미역 밭의 주인을 ‘각주’라고 해서 그 바다의 미역을 산 주인이 있다. 그런데 배를 타고 다니다보면 자신들이 켈 바다보다도 더 많은 미역이 자라고 있는 바다를 종종 보게 되는 것이다.

‘어랑리’ 바당은 미역 좋기로 유명하다. 검은 미역은 바다 위로 미끈하게 드러누어 있다. 도인은 다시 해녀들을 부추기기 시작했다. 자신은 바다에 들어가지 않고 해녀들만 들어가서 미역을 따오도록 한 것이다. 재미로 한 일이지만, 하마터면 각주에게 들킬 뻔했던 일도 있다.

도인은 번 것 전부를 자신이 가진다. 왜냐하면 도인이 직접 해녀들을 모으고 인솔하고 갔기 때문이다. 다른 해녀들은 선주와 4대6 혹은 3대7의 비율로 자신이 잡은 해산물을 전주에게 3할 혹은 4할을 떼 준다.

물질해서 번 돈은 육지에서 우선 얼마간 시어머니에게 보낸다. 5,000원이나 1만원 정도를 자식과 시어머니 생활비로 보내고, 다시 2,000원 정도 벌고 와서 시어머니에게 반드시 드린다.

“나는 돈이 필요 없다. 보여주기만 해라. 살림은 내가 하는 데, 나는 무슨 돈이 필요하겠느냐?”

도인이 갓서른이 넘어서 일이다. 전라도에서는 물질 나가는 것을 ‘개발하러 간다’고 한다. 그 날은 사촌 올케랑 도인이 같이 뱃물질을 하는데, 도인의 경험으로 가시리와 파래가 바다에 지천으로 있는 모습이 마치 전복이 많이 붙어있

을 것처럼 보였다.

“날랑 여기로 빠져 주꼭, 형님이랑 저쪽으로 해 오십서” 그리고 사공에게는
“나중에 물질이 끝난 후 나를 태우러 옵서”

시누 형제가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한두 개밖에 못했다. 바다 밑은 전부 등근
들로 된 등글 왓이었다. 도인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분명 이러한 바다에는 전
복이 많은 데, 조금 더 바다 밑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게 꿈인가 생시인
가 모를 정도로 바다 밑에는 전복이 나뭇가지에 주렁주렁 달려 있는 과일처럼
돌마다에 전복이 한두 개 씩 붙어 있는 것이 아닌가? 도인은 물속으로 들어가서
살그머니 빗창으로 전복을 뜯 후(전복 떼는 것을 뜯다라고 한다.) 다 떼어놓기
만 하고 다시 자맥질을 하여 다시 따낸 전복을 주섬주섬 주워 가지고 물위로 올
라와 망시리에 넣는다.

다른 바다에서처럼 하나를 따고, 물 속으로 들어가고 하면서 물 속에서 동작
을 많이 하면, 전라도 바다는 빨바다여서 물밑의 흙들이 일어나서 더 이상 작업
을 할 수가 없게 된다. 그 날 전복을 10관 정도를 했다.

망시리가 가득 차서 테왁이 물밑으로 가라앉을 정도였다. 도인은 사공을 불러
손을 쳤다.

“빨리 와서 전복 받아 주십시오”

사공과 기관장은 도인이 늘 상 장난을 잘했기 때문에 거짓으로 하는 줄 알고
오지 않았다.

“아줌마 장난하고 있지?”

그날 도인은 전복을 엄청나게 틀었던(잡았던) 것이다. 사공과 기관장은 깜짝
놀랐다.

도인은 ‘머정’이 있었다. 머정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보다 운명적으로 바다의
전복과 같이 값나가는 물건을 잘 딸 수 있는 운수를 가진 것을 말한다. 그래서
다른 해녀들은 도인을 늘 부러워했다. 도인은 잘 잡지 못하는 해녀들에게 전복
을 따서 500그램이나 1000그램 짜리 한 두개를 망시리에 살짝 넣어주기도 했었
다. 해녀들에게는 이런 말이 있다.

“물엿 것은 골라 먹인다”(물에 있는 물건은 선택해서 준다)

‘골라 먹인다’라는 말은 선택된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말인지 모르지만, 도
인씨는 ‘골고루 평등하게 먹는다’라는 말로 해석했다.

이틀 뒤에 해녀 셋이 굴속과 같은 곳에 들어갔다. 역시 그곳도 전복이 많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전복하나를 트고서 손을 씻었는데, 그만 시신을 씻은 것도 같고 사람의 엉덩이 뼈를 만진 것도 같았다. 도인은 겁이 나서 곧장 물 위로 나왔다. 그리고는 마을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얼마 전에 사람이 죽었는데, 시신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도인이 위치를 가르치자, 마을 사람들이 가서 시신을 건지고 장사를 지냈다. 도인은 그 날부터 속이 메스껍고, 정신이 혼돈스러워 도저히 밥을 먹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냇이 나갔다고 하여 다시 무당을 빌어서 '새 풀이'를 하였다. 그리고 도인은 성주가 물려서 반드시 그런 험한 것을 보면 새(邪)를 풀어야 한다고 했다.

조도섬은 잘잘한 전복이 많은 섬으로 유명하다. "전복 좋은 데로 보내줍사"하고 뱃물질을 갈 때면 반드시 용왕에게 기도한다.

전라도 곳곳의 섬이 도인의 발이 닿지 않은 곳은 없었다

나. 남의 자식을 데려다 키우며

도인은 직접 해녀물질 모집을 했다. 배선주가 해녀모집을 부탁한 것이다. 한동, 행원, 월정의 해녀들을 7~15명 정도 모집했다. 여수에 물질을 가면 배선주가 구해 놓은 방에 거거하며 숙식을 한다. 선주는 해녀들이 쓸 용돈이나 비용을 도인에게 전부 의뢰를 했다. 반찬 비용이라든가 돈을 넉넉히 주면서 해녀들을 섭섭하게 하지 말도록 했다. 도인은 배선주가 사람 품이 넓어 보여 37세까지 여수 배 선주의 심부름을 해주면서 해녀모집을 했다.

25세(1950)때 음력 2월에 출가물질을 여수로 갔다. 오누이를 시어머니에게 맡기고서였다. 아들 정봉이는 7살이 되고 미순이는 5살이 되어 어느 정도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다. 물질 간 곳의 자취방 주인집에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자신들의 외손주가 가난하게 살고 있어서 제주도에 데리고 가서 키우라고 자주 권했다.

"양철아 제 손자 데리고 가서 니가 좀 키워줘라" 양철이는 도인의 별명이다. 가는 곳마다 장난을 잘하고 잘 어울리는 성격 때문에 사람들은 도인에게 별명 붙이기를 좋아했다.

도인은 얼른 "그러지요 뭐" 자신이 어렸을 때 너무 어렵게 자랐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동정심이 나서 얼른 대답했다.

봉례가 살던 곳은 가까운 마을 '강니'였다. 아닌게 아니라 자식이 일곱이며, 영감도 있었다. 가마니 거적땀기로 문을 달고 술에는 바랜 파래에다가 보리를 꺾었던 등개가루를 넣고 죽을 쑤어 먹었던 흔적이 보였다. 아이들은 얼굴이 누

르딩딩하여 빈혈기가 들었다. 어머니가 다시 자기 자식을 키워달라고 졸랐다.

“동생 네야 우리 봉례 하나 데려다 딸 같이 키워라”

“니 나랑 같이 가서 살래?”하고 묻자 아이는 도인의 가슴팍으로 확 달려와 안기는 것이었다.

6살짜리를 데리고 오자 미순이 보다는 한 살이 위여서 큰딸로 호적에 넣었다. 지금 김봉례 씨는 엄연한 이 집 장녀가 되었다. 해녀 물질 갔다가 남편을 만나 지금 부산에서 살고 있다.

26세에는 보길도에 물질을 갔다. 자취방 집에는 외할머니와 살고 있는 손자들로 온 집안이 떠들썩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어머니는 다른 데로 개가하여 손자 둘을 외할머니가 키우고 있는 것이었다.

할머니는 도인에게

“제주 각시야 저거 12살인데, 공부는 안 시켜도 좋으니 밥이나 먹이고 옷 만이라도 입혀줘라”

아이는 남자아이인데, 글도 철철하고 공부도 꽤 잘해서 영특하다는 소리를 들어왔다.

“굿뱅아 너 나랑 같이 갈래, 고생하면 어떡할래?”

“고생해도 좋아요”

아이들을 데리고 고향에 들어오니 시어머니는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지었다. 우리도 먹고살기 어려운데, 남의 자식이라니 하면서 한탄하였다. 도인은 자신이 벌어서 먹여 살릴 테니 걱정 마시라고 말씀드렸다.

그런데, 문제는 도인의 장남 정봉씨보다 나이가 위여서 호적에 올리기가 난처했다. 작은 시아버지께 말씀드려서 결국은 시숙으로 삼기로 했다. 그래서 지금도 정봉씨는 그에게 삼촌이라고 부른다. 곧 도인에게는 시아주머니가 되는 셈이다. 얼마 없어 동생이 보고 싶었던지 “아주머니 우리 동생도 데려다가 내 키우듯 키와 줘서”라고 했다. 아주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도인은 차비를 마련하여 보길도로 일부러 가서 아홉 살 된 동생을 데려다 형 밑으로 호적에 넣어 21살까지 키워주었다.

남의 자식을 셋이나 데려오니 식구가 일곱으로 늘어서 곡식이 모자랄 때도 있었다. 그럴 때면 바다에 가서 패나 물을 해 가지고 물에 담갔다 술에서 삶는다. 그리고 물기를 뺀 후 밥을 하는데, 보리쌀과 함께 섞어서 밥을 해 먹었다.

둘째 시숙이 21살 정도 되자 자신의 어머니를 찾겠다고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를 앓았다. 3년 정도 넘어서 전화가 걸려왔었다.

“아주머니 차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큰집(교도소)에 다녀오고 해서 연락을 못했습니다. 다시 연락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다. 또 다시 연락이 왔다. 교도소에서 나오고 전라도 색시를 얻어서 결혼을 한다고 했다. 현재는 아들 형제를 낳아서 서울에 살고 있다. 육지여행을 갔을 때, 자가용을 몰고 도인을 찾아와 10만 원을 주고,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큰절을 한 다음에 하룻밤을 같이 잤다. 그리고 맷쌀 한말과 찹쌀 한말을 싸서 주며 제주도에 가지고 가라고 했다. 어릴 때 데려다가 키워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였다.

4·3사건이 끝난 몇 년 간은 물질하러 들어가서 굶은 것, 헛것들을 많이 보았다. 지금도 생각하면 무시무시한 일이다.

하루는 물 속 자맥질 끝내고 물위로 나왔는데, 커다란 붉은 말이 바로 앞에 떡 버티고 서 있는 것이 아닌가? 깜짝 놀라서 자신도 모르게 다시 물 속으로 자맥질을 했다. 다시 나와보니 이 말이 동쪽으로 물 위를 휘휘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어느 날은 흰 물수건을 쓰고 흰 물속옷을 입은 여인네가 감태를 이리 저리로 제끼면서 족세눈을 쓰고 도인의 앞으로 헤엄쳐오는 것이 아닌가

도인은 아무런 다른 말은 하지 않고 해녀들에게

“옵서 나가게”(어서 나갑시다)

다른 해녀들은 그 이유를 묻지 않고

“기여(그러자) 나가게”했다. 그날 이후 3일간은 물질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 ‘오저여’ 부근에 잠수를 했는데, 물밑에는 큰 전복과 빨간 ‘북바리’인 물고기가 헤엄치고 있었다. 도인은 그때 한 쪽에는 빗창, 한 쪽에는 작살을 가졌으므로 전복을 딸까 북바리를 잡을까 하고 망설였다. 그런데 도인이 여섯 발 정도를 들어갔으나, 바위 흠에 발이 낄 것 같고, 불안감이 엄습했다. 바로 옆에서 물질하고 있는 유육이를 불러서 물건이 있는 곳을 가리키려고 하는데, 엄청나게 큰 물소를 본 것이다. 큰 뿔이 돋고 펄떡펄떡 날개를 치는 모습이 마치 자신을 잡아먹을 것처럼 보였다. 쩍싸게 벋들에게 나가자고 하여 모두 물 밖으로 나왔다.

그때부터 도인은 아프기 시작했다. 특별히 아픈 곳은 없었으나 시름시름 아파온 것이다.

동네에 살았던 무당은 남이 웃건 말건 ‘허우땃소리’(서우젓소리)에 맞춰서 어깨를 들르는 편이 낫지 않느냐는 말을 했지만 도인은 절대로 심방들이 추는 춤

은 추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어깨를 들른다'는 것은 큰곳을 한다는 말이다. 그 해 여섯 번 심방을 빌어서 새풀이를 해서 몸은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

다. 삼대가 물질을

봉례와 미순이는 동갑이었다. 봉례는 물질기능이 모자라서 기가 죽었으나, 발일은 누구보다도 잘했다. 그러나 미순 씨는 발일보다는 바다에서 물질작업을 잘했다. 도인은 시어머니와 발일을 하다가 옆 발의 상군할머니가 '헉헉' 하면서 신호를 하면 바다로 나간다. 같이 김을 매던 시어머니는

“바당에 혼자 강 가달춤이나 해(바다에 빨리 가서 물질이나 해)”

하면서 물질을 가도록 증용한다. 상군할머니는 '고래 상군'이라 부를 정도로 아주 물질에 뛰어 났을 뿐만 아니라 의기도 찬 어른이다. 그 날은 '새여'라는 곳에 물질을 가는 날이었다. 새여는 첫 동네 순봉이 아방 네 집 이문간(대문) 바로 아래쪽에 있는 섬으로 파도 세기가 엄청나고 몰살이 빠르기로 유명하다.

그 날은 썰물이 동쪽 바다로 나가고 있었다.

“이여차 이여차” 하면서 나갔는데, 썰물이 어떻게나 센지 '새여'를 찾아 먼바당으로 나간 해녀들을 다 쓸어버릴 것 같았다.

“어어 하도리로 쓸어 가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할망덜 죽엄시민 우리도 죽곡(어떻할까, 할머니들 죽으면 우리도 죽어)” 모두가 걱정이 말이 아니었다. 그런데 행원리 한 노인이 불락 낚으러 갔다가 올라오고 있었다.

“요 여편네들아 죽으려고 여길 왔나. 이거 하도 아래까지 내려왔어”

“아 우리 계난 하도 왔썬가?”

노인이 취 줄을 던져줘서 그것을 잡고서 배를 타고 더뎡이물로 올라왔다.

“하마터면 소섬(우도)까지 불릴텐데, 저 배 만난 살아났지”

더뎡이물에 온 해녀들은 안심이었다. 소라를 들로 뺏아서 여물을 먹고 허기를 채운 다음에 조금 더 작업을 하다가 돌아왔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물질 나가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후원해주고 종종 '미역 무례'는 같이 나간다. 시어머니는 저쪽 편으로 도인은 가까운 편으로 미역을 훔고 지나간다. 그런데 시어머니와 도인씨가 미역이 많이 있어서 어느 곳으로 오라는 신호는 '어허', '어허'이다. 많이 있다고 하면 다른 해녀들이 달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신호로만 한다. 시어머니는 남보다 더 물질 작업을 욕심있게 한다.

그래서 물질 작업이 끝난 후에는 종종 다른 해녀들이

“늬네 시어머님이 ‘어허’ ‘어허’ 하고 이상한 소리를 낸다”

고 놀리기도 했다.

시어머니와 미역 무레를 하면 항상 며느리보다 나은 편이다. 그러면 시어머니는

“미역도 어디강 쫄른쫄른 한 것을 했다”고 며느리를 놀린다

그렇지만 소라나 고동을 잡는 ‘헛무레’는 도인이 머정이 있어서 많이 잡는다.

봉례가 20살이 되자 청혼이 들어왔다. 봉례를 6살에 데리고 와서 키운 지 거의 15년이 되었다. 사위가 될 사람은 김녕 사람으로 서울에서 고모네 집에 살면서 직장을 다녔다. 그래서 결혼식은 서울에서 치렀다. 셋 시아버지와 함께 서울에 올라가서 결혼식을 치렀다.

모처럼 딸을 시집 보내니 자식이 한 명 덜어지는 것 같았다. 도인은 다시 부모 없는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고 싶었다. 고아원에 가서 두 달 된 계집아이를 데리고 왔다. 아이는 밤새도록 울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39세가 된 도인에게 젖을 먹이라고 야단들이다. 그런데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빨게 하자 거의 20년 동안이나 잠자던 젖줄이 일어나서 젖이 펑펑 쏟아지는 것이 아닌가?

이름을 영숙이라 짓고서 17년이나 잘 키웠다. 아주 물질 작업이 뛰어나고, 남보다 빨리 물질 작업의 기량을 익혀나갔다.

라. 남당은 해녀들의 신앙처

행원리에는 해녀들의 신앙처로 당이 두 곳에 있다. 알당과 웃당이다. 알당을 남당이라고 한다. 도인은 25세 때부터 해녀회 회장을 9년 동안 맡았다. 이때 권제를 받아다가 당집을 보수했다. 주로 정월 보름과 10월 보름에 제를 올린다. 보통은 웃당에 가는 데, 주로 3일 동안은 근신을 해서 몸을 깨끗하게 한다.

정월 초사흘 날은 신과세제가 있고, 정월 보름 제일에 ‘지드림’ 행사를 한다. 특별히 영등굿을 하지는 않으나, 이날 행사가 영등굿 행사와 비슷하다. 그리고 칠월 열나흘 백중날은 마불림제와 지드림 행사를 한다.

쌀로 만든 돌레떡을 가지고, 사과, 배, 밀감, 감 등의 과일을 마련하고 재숙은 바닷고기로 우럭을 3개 쓴다. 계란은 서너 개가 필요하다. 웃당의례의 특성은 절대로 돼지고기는 써서는 안 되며 3일간은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는다. 지에는

‘큰지’와 ‘몸지’ ‘요왕지’가 있으며, 식구 모두에 따라 정성스럽게 쓴다. 큰지는 바다에 가서 빠져 죽었거나 큰 일이 있었던 조상에게 받치는 것이고, 몸지와 요왕지는 식구들의 건강과 안녕을 혹은 장수와 풍요를 기원하는 것이다.

도인도 시어머님의 부탁에 따라 큰지를 썼다. 계란반쪽, 들래반쪽, 매한기 반쪽을 넣어서 썼다. 그리고 몸지와 요왕지는 식구 별로 2개 씩을 썼다. 하나는 요왕에 기원하고 하나는 자신의 몸에 대한 기원이다. 그래서 아들 부부와 딸, 손자의 지를 싸다가 아들 정봉 씨가 결혼 한 후에는 며느리에게 이 지를 싸서 기원하는 의례를 넘겼다. 과거 행원리 옷당은 발 디딜 틈이 없이 많은 사람이 모였으나, 지금은 많이 줄었다. 그래도 정월 대보름이 되면 제주시에 살던 많은 고향 사람들이 찾아와서 정성을 다한다.

해녀들은 해녀물질 중에 물 숨을 먹어서 죽는 경우가 있다. 자맥질을 했다가 너무 물엿 것에 욕심을 내어 물위로 나오기 직전에 숨이 막혀 죽게 되는 것이다. 이때는 사람은 간 데 없고 테왁만 물위로 동동 떠오르는 것이 예사다. 그리고 한 며칠 지나서야 시신이 올라와 마을 개곶으로 둥둥 떠오르는 경우도 있다.

또 해녀들은 물에 들 적마다 반드시 약을 먹었다. 그것은 물질 작업을 할때 자주 머리를 밀어서 해산물을 따야 되므로 머리 속의 뇌가 흔들려 아프거나 온 몸이 쭈시는 등의 통증을 막기 위함이다. 곧 통증을 방지하기 위해서 진통제를 먹는 것이다. 주로 뇌선, 콘택육백, 사리돈, 신경통약 등이다. 이러한 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정신이 없다가거나, 나불(파도)에 친다가거나 하는 경우 죽음에 이르는 때가 종종 있다.

그래서 그녀들은 죽는다는 개연성을 항상 품고 있다. 그래서 해녀노래에서 “혼백상자를 옆에 차고, 칠성판을 지영 물속을 오락가락 한다”고 자신들의 물질 작업을 정의한다.

이러한 불상사의 죽음이 있으면 바다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 물굿을 해야한다. 주로 죽은 시신을 바닷가 근처에 두고 장사일을 정해서 치르고 난 후에 바다에 가서 물혼을 부르고, 새풀이를 한 다음 귀양풀이를 한다. 물 속에서 빠져죽은 영혼을 불러서 집으로 모셔온 후 잿상과 병풍, 명석을 치고 굿을 하는데, 죽은 영혼을 저승으로 잘 보내고 나중에 후탈을 없애자는 의도이다.

영숙씨가 17세가 되는 8월 어느 여름날이었다. 도인은 제주도 오일장에 가서 새까만 포도를 사고 집에 돌아와 보니 봉례와 미순 씨, 영숙 씨가 들에 나가 일을 하고 들어왔다. 아침 새벽부터 깨밭에 가서 호미를 가지고 깨를 베고 돌아

온 것이다. 물때라서 물질 작업을 가려고 준비중이었다. 미순씨가 수돗물에 가서 포도를 깨끗이 씻고 가지고 들어왔는데, 영숙 씨가

“언니 여기에 벌레들이 많아”

미순 씨가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벌레는 없었다. 도인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어머니 오늘은 나 물질하러 가고 싶지 않아”

영숙 씨는 손바닥으로 머리 이마를 짚으면서 말했다.

“빨래 할 것도 많은 데, 오늘은 가고 싶지 않으면 통에 담겨 있는 빨래나 해라” 도인은 심드렁하게 말했다. 그래도 어머니랑 언니가 모두 물질하러 나가는 데, 혼자서 집에 남아 있는 것이 정상이 아닌 듯 테왁과 망시리를 들고서 따라왔다.

여느 때처럼 사리돈을 한알 씩 나눠 먹고 고무옷을 입기 시작했다. 두 언니가 고무옷을 다 입고 물에 들기 시작했다. 도인은 어깨 한쪽만을 끼우고 정신 없어 하면서 옷입기가 거북해 하는 영숙씨를 보았다.

영숙 씨가 갑자기 “성님 나 정신 없어”하고 바로 그 자리에 쓰러졌다. 급히 고무 옷을 벗기고 보니 많은 땀을 싸서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도인은 급히 차를 부르고 제주시 병원 응급실로 가면서 여러 생각을 했다.

“땀을 싸면 죽는다고 했는데……”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으니 목숨이 있을 때 데리고 가라고 선고했다. 아닌게 아니라 돌아오는 도중에 목숨이 끊어지고 말았다. 건강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도인은 아마 사귀가 들어 자신의 딸을 데리고 간 것이라고 생각했다.

바닷가 근처에 천막을 치고 시신을 지켰다. 집 밖에서 죽은 시신은 보통 집안으로 다시 들여놓지 않는 법이다. 비록 17살이지만, 어른 식으로 장사를 치르고 초하루 보름 삭망을 지내고 소상, 대상을 치렀다.

시집도 못 가본 너무나 억울한 영혼이었다. 그래서 도인 씨는 귀양풀이를 했을 뿐만 아니라 저승질을 치는 하룻밤 하루 낮 동안 큰굿을 했다. 바다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 더뎡이불에서 역시 물굿도 했다.

귀양풀이를 할 때, 영혼은 흐느꼈다.

“어머니 나 혼자 저승질을 어떻게 가, 어명아 나 벗 없어 어떻게코?”

“어명하느냐, 저승은 혼자서 가는 길이며, 혼자자라”하고 도인 씨는 딸의 영혼을 달래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돌도 없이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일년도 채 못되어 물질

하다가 죽고 말았다. 친구의 어머니는 자신의 딸의 꿈을 꾸었다며

“영숙이는 아마 좋은 곳에 간 것 같아.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까만 저고리를 입고, 흰 치마를 입고, 흰 고무신을 신었는데 꽃다발을 들었어. 그 뒤에 우리 딸이 서 있었어.”

사혼을 위한 중신이 서귀포, 종달리, 행원리에서 들어왔다. 같은 동네에 사돈을 삼고자 행원리로 결정했다. 살아 있을 때 올리는 결혼식처럼 예단을 준비했다. 이부자리, 베개, 주전자, 그리고 계를 들었다가 탄 돈 50만원을 봉투에 넣어 사돈집으로 보냈다. 당시 50만원은 상당한 금액이었다. 죽은 딸의 영혼은 그 집 안에서 아주 환대 받았다. 그 집안에서 딸의 영혼에 큰지를 바치고, 당에 가서 빌기 때문에 그 딸에 대한 특별한 정성은 하지 않고 비록 생을 달리했지만 상당한 안도감 같은 것을 느꼈다.

도인은 69년 12월부터, 73년 3월까지 잠수회장을 했다. 행원리 해녀회는 6개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안도인 회장은 3조합에 속해 있었다. 해녀회에는 각 조합마다 회장이 있고 부회장 1인이 있으며 그리고 전 해녀회를 통솔하는 연합회장이 있다. 해녀회장은 남자 어부들인 어촌계와 화합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해야한다. 회장을 맡았을 당시는 잠수계, 잠수회 주최 행원리민 경로잔치를 했던 것이 가장 기억나고 보람 있었던 일이었다. 그리고 기금을 모아서 당집을 보수했다. 날씨가 좋을 때 계를 들이기 위해, 해녀나 해녀 가족들이 계에 참여하는 불편을 덜기 위한 것이다. 계를 올리는 날은 당집 내부에 사람들이 뿔뿔이 들어차고 객지에 나가서 살던 사람들이 모두 참여하게 되어 만원을 이룬다.

이때는 한창 고무 옷이 유행이었다. 고무 옷을 입으면 12발까지도 능히 잠수가 가능했다. 세화에도 옷을 만드는 데가 두 곳 있었으나 도인은 제주시에 가서 옷을 맞추어 왔다.

마. 자식들을 결혼시키며

아들 정봉 씨는 3대 독자였다. 시어머니는 아들 손자를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아기였다. 아이를 데리고 다니다가도 사람들에게 인사 받을까 봐서, 사람이 드나드는 길을 피해서 다닐 정도로 땅에 놓지 않고 키웠다.

그래서 남편은 아들을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에 입학 시키라고 했다. 그런데 얼마 없어 병이나 학업을 지속하지 못하고 집에 돌아와 버렸다. 도인은 혹시 귀한 아들이 어떻게 될까해서 큰곳과 작은곳을 했다.

봉례 씨를 39살에 결혼시키고, 그 이듬해에 아들을 결혼시켰다. 남편은 등록이 안 되어서 올 수는 없었으나 친척을 통해서 구두와 옷, 결혼자금을 일본에서 붙여왔다. 아들에게는 두 아들 손자와 딸 손자가 있다. 모두들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업을 하고, 이제는 모두 직장에 들어갔다. 그리고 딸 손자는 결혼해서 부산에 가 살고 있다. 결혼 자금은 마련되었지만, 계속해서 큰 일을 치르려니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들어 도인은 다시 출가 물질을 떠났다.

그때는 사촌 시누이가 같이 가게 되어 있었다. 사촌시누이는 해산달이 다되어서도 물질을 하다가 성님 곁에서 아기 낳아 오겠다고 극구 고집을 부렸다.

“물질훔곡 아지망 한테서 아기나곡 조리호쿠다(물질하고 언니께 가서 아기도 낳고, 몸조리도 할게.)”

도인은 어쩔 수 없었다. 아닌게 아니라 얼마 없어서 아들을 낳았다. 그런데 용신네는 어장촌이라서 그런지 몸 가른 것(해산 한 것)을 사람 죽은 것보다도 더 가렸다. 아기 난 사람 때문에 물(샘)이 부정할 수도 있어서 우물결에는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도 않아서 구박이 아주 심했다.

도인은 아기 태를 깡통에 넣어서 바다로 가지고 나갔다. 던지려고 해도 어디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남들 모르는 사이에 바다에 파묻기로 작정한 것이다.

깜깜한 밤에 큰돌을 일러서 작은 돌들을 파 깡통을 비웠다. 그리고는 묻고서 큰돌로 다시 눌러두고 사람들이 볼까봐 조바심하면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이튿날은 바람이 세고 폭풍우가 덮쳤다. 도인은 새벽에 바다를 산책하는 것처럼 해변가를 걸었다. 그런데, 예상했던 바대로 묻어둔 아기 태줄이 바닷가로 올라온 것이 아닌가? 아무도 모르게 그것을 바위틈에 숨겨두었다가 날이 저물자 호맹이를 갖고 가서 파서 묻었다. 아기 난 후 한달간 몸조리를 마친 후 제주로 돌려보냈다. 그때 낳은 아기가 자라서 장가를 가고 다시 그 아들이 장가까지 갔다니 세월은 무상하기만 하다.

미순씨 역시 오패와 3살 차여서 바로 결혼을 시켜야 만했다. 다시 아버지가 “외딸인데, 섭섭하게 하지 말라”하면서 넉넉하게 돈을 부쳐왔다.

사위 된 사람과는 서로 이웃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친하게 지냈다. 사위는 인상이 좋고, 어릴 적부터 아주 성품도 좋았다. 힘도 세고 건장한 청년이어서 도인 맘에도 들었다.

“미순아 너 재중이에게로 시집 갈거냐?”

“안 가쿠다”

“생각이 있어 여기 와서 놀고 하는 것이 아니냐?”

신랑집의 시아버지가 되실 분은 미순씨를 데려 가고 싶어서 안달이었다. 그리고 당시 사윗감은 구좌 지역의 장사들이 세화 학교에서 씨름대회를 했는데, 일등을 하고 대표로 서울에까지 가서 씨름 대회에 참석할 정도로 건강하고 힘센 청년이었다.

둘이는 동갑내기로 돼지띠들이었다. 미순씨는 위로 딸을 셋 낳았다. 네 번째 아이를 임신하고서는 여간 걱정이 아니었다.

“어머니 다시 딸 낳으면 어떻게 해?”

“나고 있으면 아들은 언젠가 난다”

미순 씨는 네 번째 아기를 낳는 날까지 바다에 가서 물질을 했다. 집으로 돌아오자 몸이 추워오더니 산기가 있어서 병원에 가서 아들을 낳았다.

은 집안식구들이 좋아서 야단들이었고, 그 밑으로 다시 아들을 낳았다.

바. 그리던 남편에게서 연락이

시외할머니가 돌아가신 날이다. 장사를 준비하고 성복제를 올리려는 시간에 무슨 편지가 오고, 이상하게도 ‘성님, 작은 마누라’ 등의 단어가 사람들 입에서 오르내리면 도인을 슬슬 피해나갔다.

“고모님, 일본에서 아들 낳았다고 햐썸다” 외사촌의 한마디다. 고모라고 하면 바로 도인의 시어머니가 되는 셈이다. 도인은 금세 알아차렸다. 일본에 간 남편이 혼자 살 리야 없겠지만, 늘 생각해보던 꿈속과 같은 악몽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도인은 그래도 그러한 상황을 완화시키지 위해서,

“자손 귀한 집에 자식이 생겨서 잘된 일이 우다” 그냥 한마디를 뱉었다.

그 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그냥 방에 쓰러졌다. 아닌게 아니라 눈물이 ‘소를 이룬다’는 말이 있는데, 도인은 얼마나 울었는지 오리가 살 수 있는 연못이 아니라 온 방안이 밀물이 들어와 바다를 이룬 것 같았다.

너무나 울었다. 24세에 떠난 남편은 20년을 아무 소식이 없이 치내다가 지금 중년이 넘긴 44세가 되어야 연락이 온 것이었다. 20년 동안 기다림의 세월을 막 눈물로나 쏟아내는 편이 나올 듯 싶었고 한편으로는 사실을 알아 확인해서 한결 시원하기도 했다.

너무도 그리웠던 사람이고, 궁금했던 일이지만 사실을 확인하니 가슴 속에 썩

어 응어리졌던 상처가 마치 맑은 물로나마 확 씻겨져 나오는 것 같았다.

시의할머니 장사를 마치고 시어머니는 자나깨나 한 숨만 푹푹 쉬었다. 그리고는 도인의 눈치만 살피면서 술을 피하기도 했다. 시어머니는 차마 당신의 입으로 저간의 사정 얘기는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다.

어느 날 셋 시아버지가 부르셨다.

“아직망도 차마 말하지 못하고 이것을 어떻게하느냐, 말로는 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고 물었다.

“말씀하십시오”

도인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알아차렸다. 그리고 편지 온 그 날부터 지금까지 결심해놓은 바가 있었다. 무슨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더라도 절대로 충격 받지 않고 처신해 나가겠다는 결심인 것이다.

자식도 호에 입적해야 하고, 꼭 한번 한국에 오고 싶은데, 지금 일본에서 등록이라도 해서 한국에 와 늙어 가는 어머니라도 꼭 한번 뵈었으면 한다는 것이다.

남편이 자신에게서 호적을 떼어 일본으로 가면 도인 자신은 혼자 호적을 갖게 되고, 독신이 되어 도인이 낳은 자식들도 모두 지금 남편과 일본에 살고 있는 작은부인의 자식으로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곧 이 남편과는 법적으로 이혼이 되는 셈이다.

잔인한 운명이다.

“어머님 정봉 애비가 일본에서 저렇게 호를 벗겨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편이 좋을까요?”

“호를 벗겨 주라고는 도저히 내 입으로는 못하겠다. 지금까지 너의 남편을 살린 건 너였다. 이왕에 살려 주었으니 네 머리 속에서 생각나는 대로해라”

그러나 도인은 자신에게 덮치는 모든 불운한 운명을 다 받아들일 결심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남편이 있어야 이혼수속을 밟을 수가 있는데, 도인은 수를 쓰기로 작정하고 시삼촌의 도움을 얻을 결심을 했다.

“오늘 하루만 남편 노릇 좀 해주십시오” 법원에 돌이 가서 판사의 심문을 받았다.

“왜 이렇게 한창 살 때에 이혼하려고 합니까?” 시삼촌을 옆에 두고서 도인은 “아무리 살려고 해도 정이 없어서 못살겠어요”라고 말꼬리를 흐리면서 대답하자, 도저히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모든 서류를 해서 남편이 있는 오사카로 보냈다.

이후부터는 장가간 아들과 일본에 있는 남편에게서 서로 연락이 오갔다. 이제 남편은 어엿한 교포로 등록이 되었다.

시어머님 임종을 앞두고 남편은 26년 세월에 반백이 된 머리와 작은 부인과 아들을 데리고 고향에 왔다.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어디 갔다 이제 왔느냐”

“어머니 용서하십시오”

암 투병생활로 가지처럼 앙상한 몰골을 한 어머니의 모습을 본 아들은 큰소리를 내며 울었다. 도인은 자신의 남편이었던 남자가 상당히 이방인처럼 느껴져서 뒷전에 물러서서 쳐다보고 만 있었다.

시어머니 역시 죽음을 목전에 두고 만난 아들을 보면서 유언을 했다.

“애야, 정봉 애미를 울려서는 절대 안 된다. 절대로 울리지 말라이...”하고 어머니는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

남편이 없을 때 시어머니는 한 여성이면서 동지였다. 75세를 마지막으로 암 투병에 힘겨워 임종하는 시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 바로 며느리라는 한 여성을 남성에게 부탁한 이유는 무엇인가?

시어머니의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작은 집은 도인에게 정실부인으로 대접한다는 표시인지 너무죽이 절을 하면서 용서를 구했다. 그리고는 아들에게도 큰어머니라고 소개했다.

“부인 언어서 자식 낳지 않겠어요, 외아들인데 잘 되었습시다” 도인은 가슴이 아파도 같은 입장의 여성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아들은 너무도 많이 남편을 닮아 있었고, 자신의 아버지처럼 얼굴이 준수하고 미남형이었다.

그 날 밤은 두 처첩이 같은 방에서 잠을 잤다.

시집간 봉례 씨는 지금도 동생 미순 씨를 통해서 한 달에 두어 번 정도 도인의 안부를 묻곤 한다. 비록 자신이 낳은 자식이 아닐지라도 부모를 생각하는 것이 끔찍하여 도인은 효성스런 딸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에 있는 아버지에게도 마찬가지로. 남편은 데려다 키운 자식도 아주 좋아한다. 특히 봉례 씨를 좋아하는데, 봉례 씨는 역시 남편과 함께 일본에 가서 아버지 공장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다. 두 자식을 시동생에게 맡기고 일본에 가서 슬리퍼 만드는 공장에서 10년 이상을 일했다. 두 부부는 많은 돈을 벌고 자식의

양육비랑 교육비를 시동생에게 부쳤다. 지금은 부산에서 살고 있다. 일본에 있는 아버지도 제주에 왔다가 일본으로 갈 적에도 부산에 들러서 봉래씨 집에 가서 묵었다 가곤 한다.

굿뱅 씨도 일본에 가서 공장 노무자로 일을 하고 싶어했다.

“아이는 쓸 만하냐?”

차비랑 옷을 해서 일본으로 보내었는데, 경관에게 걸려서 제주도로 보내어지고, 다시 두 번째로 일본에 갔으나 거기서 행방불명이 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형수님, 굿뱅이우다. 3년이나 연락도 못 드리고”

도인 자신이 데려다 자식처럼 기른 시동생이지만, 부모를 대하는 것처럼 도인 씨를 너무 좋아했다.

4. 물질쇠퇴기

가. 온 몸에는 병이 생겨

전복을 딸 때 쓰는 빗창은 개 날에 사다가 사용하면 재수가 좋다고 한다. 그리고 노란 녹이 쇠에 피면, 그것을 돌과 같은 데에 갈면서 장난으로 개×이나 하라고 한다.

그리고 나오는 녹물을 얼굴에다가 바르기도 하고 혹은 귀에도 바른대. 그리고는 “빗창은 빗꾸래기,

망사리는 망할 징조”

라고 한다. 아무리 빗창으로 전복을 떼어서 돈을 벌더라도 가정경제에는 도움이 안되고 망사리를 들고 물질하는 해천 영업은 망할 징조라고 하니 새겨 볼 만한 일이었다.

도인이 아주 어렸을 적부터 따랐던 한 상군할머니는 얼굴이 곰보였다. 흰돌코지에 물질을 가면 바로 그 할머니가 생각나곤 한다.

“에 요것들 자라도 흰돌코지 밖에 까지나 갈 수 있을런가?”

이제야 물질 작업을 배워 펄쩍 거리는 도인 네를 보면서 했던 이야기다. 그리고 흰돌코지 동쪽으로 내려가면 집 채 만한 영(물속의 큰 바위)이 있는데, 그 속에는 백화가 만발하여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용궁이 있어 근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그 날 도인은 노락코지와 큰여목 사이를 빠져나가 물질하였다. 거기에는 큰 배가 태풍을 만나 파손되어 기계랑 파편들이 물 속에 있다. 용기 있는 사람은 거기에 가서 전복도 트고 소라도 텃으나 겁이 많은 사람은 그 곳을 못 본 채하고 지나가 버린다. 도인이 그 걸을 지나는데, 더욱 몸도 안 좋고 소름이 일었다.

며칠 전부터 몸이 안 좋았으나, 계속해서 물질만을 했다. 보름이 넘어가자 몸이 아팠다. 제주시에 있는 내과 병원을 찾았다.

“큰병은 아니우다”

속으려고 해서 그런지 처방해준 약을 먹었으나 계속 열이 나고 통증이 심했다. 다시 다른 병원에 가서 진단하자

“급성이 아닌 만성 맹장염이 터져서 복막염으로 되었으니 급히 수술해야 합니다”

도인은 여섯시간 수술대에 누워 있었다. 석달이 지나서 집에 돌아왔으나, 상처가 아물지 않고 덧나기 시작했다. 미순 씨는

“아이고 어머니 죽을 것 같구나”하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도록 했다. 9월 초 이틀에 큰곳을 하고 초사흘에 대수술을 받았다.

그때 병원에서 꼬박 열두달을 보내고 나왔다.

몸에 병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다시 물질 작업을 하기 시작했다.

물찌에서 ‘조금’은 서물에서 다섯물인데, 물이 좋고 물 아래가 맑으면 ‘암조금’이고, 물알이 어두우면 ‘숫조금’이다. 물때가 그물어 일곱, 여덟물이 되어 물이 거칠어지면 ‘웨살’이다. 그날은 웨살이어서 더뱅이물과 앞 바당에서 물질 작업을 했다. 그런데 배가 쓰리고 아파 오기 시작했다.

집에 돌아와 제주시 병원에 갔더니 자궁에 혹이 생겨 악성 종양일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 자신의 몸에 병이 생기고서부터는 떨어져 있는 남편이 그렇게 원망스러울 수가 없었다. 일본으로 연락을 했더니 약을 써보라고 했다. 화가 나서 “누구 돈을 쓰더라도 자신을 위해 돈을 써보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서울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 서울에는 시삼촌이 살고 있어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한 결과 괜찮겠다는 말을 들어서 정말 안도감을 느껴졌다.

나. 다시 물질 현장으로

도인은 아파서 누운 후부터 자신이 물질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는 것보다도 푸른 바다에 테왁

에 의지해 몸을 싣고 하는 물질은 자신이 건강하다는 것 외에도 이 세상에 살아 있다는 증거이기도 했다.

물질을 하다보면 20~50여 마리의 곱새기(돌고래) 때가 보이면 “물알로 물알로”나 “배알로 배알로”하고 외치면 돌고래들은 해녀들 물질 작업하는 물밑으로 잠수하면서 지나간다. 어떻게 저런 미물이 사람의 말소리를 알아들을 것인가? 참 신기하기만 했다.

도인은 제사 때에는 자신이 직접 작살로 쓴 돛이나 우럭을 제숙 용으로 쓴다. 올해는 병이 나서 병원에 만 자주 다니다 보니 제숙 거리를 사서 쓰지 않으면 안되었다. 마을에 방호방 아방이 ㄹ(해변 가까운)바당에 가서 그물을 놓는데, 고기를 사러 갔다. 배 가득히 우럭과 볼락을 잡고 개창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저 정봉이 어멍 어젯밤에 꿈에 보였는데, 고기를 엄청 잡아서, 그렇지 않아도 고기 한 몫을 갖다줄려고 했는데, 잘 와서”

하며 우럭 한 몫을 배에서 던져주었다.

해녀들 역시 상당히 전날 밤 꿈에 의지하여 다음날 잡을 해산물을 짐치곤 한다. 곧 전복이라도 많이 잡는 것을 ‘스망인다(행운이 있다)’라고 하는데, 문친떡을 누가 갖다 주거나, 돼지꿈을 꾸거나, 상이 나서 배 두건을 쓰고 상복을 입으면 운이 좋아 해산물을 많이 따게 된다.

또 거북이를 보면 용왕의 말젓말애기(셋째딸)라고 해서 거북이에게 ‘스망 일게 해줍서’라고 기원하거나 절을 한다. 거북이는 대체로 물아래 모살통이라든가, 영(바위)알을 살살 기어다니면서, 사람을 헤치지 않는다.

56세가 되던 해이다. 다른 사람들은 물질 갔다가 오면 밭을 산다든가, 집을 산다든가 여자의 힘으로 돈을 모아서 재산을 일구는 것이 삶의 재미가 되었으나, 도인은 그동안 자식들을 키우느라 재산을 일구어 보지는 못했다.

이웃집에서 밭을 팔겠다고 해서 도인은 욕심이 생겼다. 그 밭은 질왓(진땅)이기는 하나 마늘 농사도 잘되고 해서 샀으면 하는 욕심이 들었다. 조상전이 400평 있기는 해도 그것은 아들에게 곧 상속시켜 버리면 자신이 늘그막에 농사지을 땅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것이었다.

그 밭은 900평이나 되어 꽤 컸다. 도인은 비록 약간의 밧을 지고 산밭이지만 보리밭에 김을 매면서 자신의 삶을 ‘검질 때는 사대소리’에 실을 때면 한편 말할 수 없는 호뭇함을 느꼈다. 평생을 살면서 자신이 번 돈으로 재산을 일군다는 것은 여간 기쁜 일이 아니었다. 비록 남편이 일본에서 가방 만드는 공장을 해서

돈을 가졌다고는 하나 그것은 도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었다.

다. 해녀노래를 무대에서

1993년 제주도청에서 조사차 온 사람들이 해녀노래를 부르라고 했다. 도인은 늘상 하던 노래라 그침 없이 불러대었다. 해녀노래 전수자, 문화재 후보라는 직함을 얻었다. 도인에게는 처음 얻은 관직으로 상당한 행운이었다.

이후로 해녀 노래를 들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전에도 학교 선생님이 찾아와서 해녀노래를 듣고 갔다. 늘 부르던 해녀노래는 도인이 선창을 매기면 강등자나 김영자 씨가 후렴을 받곤 한다.

출가 물질을 할 때 같이 다니던 터라 가사 위음이라든가 호흡이 잘 맞아서 사람들은 같이 어우러져 부르는 것을 좋아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해녀노래를 부르려면 옛 생각이 절로 나와 눈물이 난다. 다른 제주 해녀들도 다 마찬가지로의 삶을 살았겠지만 특히 도인의 노래가 슬픈 것은 당시 어려웠던 삶을 잊지 못하고, 그러한 삶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나와서 조사를 한 후 제주도 무형문화재 해녀노래 후보자여서 전수를 잘 시켜야 된다고 늘상 강조했다. 셋이서는 시간이 날 적마다 서로들 모여서 해녀노래와 더불어 제주도 민요 중 노동요를 주로 부르곤 한다. 셋이서도 각자가 좀 잘 부르는 노래가 있다. 콩이나 보리타작을 하면서 부르는 '홍애기소리'는 강등자가 잘 부르고, '자장가'는 김영자가 잘 부른다. 그리고 서로 세 사람은 누구와 짝을 하든지 서로 다른 내용의 사실을 잘 엮어간다.

1996년 제주도 승격 50주년 기념 행사와 제35회 한라문화제 제주바다 축제 민요경창대회에 창조출연했다.

그리고 97년 한라문화제 때에는 공설운동장에서 이종춘 씨의 칠머리당굿 행사와 함께 해녀노래 '이여싸소리'를 했다. 그리고 행원리에서 해마다 치르는 경로잔치에는 감초격으로 '해녀노래'를 하면 모였던 해녀들이 합창을 한다.

김녕리에 살고 있던 무형문화재 해녀노래 보유자 정순덕씨가 치매로 고생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도인은 자신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늘 행원리 사람들은 해녀노래 만큼은 다른 곳에 주지 못한다고 들 이야기하곤 했기 때문이다. 대부분 제주도 지역 어디를 가나 해녀들이 있지만 그 수가 많고, 극성스럽게 물질을 하며, 많은 수의 해녀들이 있는 지역은 바로 행원리이기 때

문이었다.

당시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국에서 해녀노래를 조사하러 자주 들르곤 했다. 아마 김녕리 보유자가 몸이 불편했기 때문에 도인 씨에게 해녀노래를 들으러 오는 것 같았다.

라. 문화재 보유자가 되고

도인은 나이가 들어도 가끔 바다에 간다. 물질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생을 넘어서서 과거를 회상하며 바라보는 것과 같다. 제주 여성이 바다물질을 하지 않는 것은 직장에 다니다가 퇴직한 한 노인의 심정과 다름 아니다.

문화재 보유자 후보로 문화재 전수자금 비용이 한 달에 25만원 씩 입금된다. 오랜만에 보는 손자들에게 용돈도 주고 생활비로는 아주 적은 금액이다. 도인은 직접 물질해서 벌어들인 만큼 씹씹이는 아주 품이 넓었다.

밭은 딸에게 전세로 빌려줬다. 딸집이 옆에 있어 식사는 거의 딸의 집에서 해결한다.

1998년 3월에 해녀노래 보유자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들었다. 도청에서 직원들이 오고가고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집중적인 조사를 했다. 그 해 겨울에는 너무도 심하게 감기에 들렸다. 조사를 왔으나 노래는 썩 시원치 않았다. 젊었을 때 그 우렁찬 기백으로 불렀던 해녀노래가 꺾전을 맴돌았으나 잘 되지 않아 자신이 듣기에는 답답했다.

한편 도인은 자신보다 해녀노래를 더 잘 부르는 사람이 있으면 마땅히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다. 그동안 너무도 많은 기간 관록을 먹었다고 여겨지기도 했다. 그런데 자신 밑에서 전수하던 강등자, 김영자, 조교들과 행원리 마을의 명예를 생각할 때는 자신의 역할은 다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몇 차례의 조사를 마치고, 2000년 3월에 문화재가 되었다는 전갈이 오고, 방송국이랑 서울에서 온 조사자들이 집에 찾아왔다.

20세기가 지나고 21세기이다

밭에 일하러 갔다가 다친 무릎 고통으로 이틀에 한번 씩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다.

동갑이었던 남편도 늙어서인지 고향엘 자주 드나든다. 2001년 음력설 전에도 게이트볼 차 30대와 공을 일본에서 직접 사 가지고 와서 기부를 했다. 게이트볼 회원은 여자 아홉 분이고 남자는 스무 명이 넘는다. 그리고 각자 자신들이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도인 자신의 몫은 아직도 없다. 그래서 직접 치지는 않고 구경만 한다.

다음에 올 때는 자신의 몫도 가져오기를 기다리지만 남편에게 부탁은 하지 않았다. 남편은 방에 걸려있는 여러 상패랑 기념패, 문화재 보유자 인증서를 한참이나 들여다보고는 아무 말이 없었다.

그동안 남편 없이도 홀로 잘 살아온 한평생, 오로지 바다에 의지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바다에 와서 숨을 크게 쉬고 해녀노래 한 곡을 부르면 외롭지도 않고, 마음 편하다.

이제 팔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기대고 부탁이고 무엇이 있겠는가? 가장 하고 싶지만, 못해서 유감스러운 것은 무릎을 다쳐서 물질을 못하는 것이다.

물 쪼에는 해녀들이 물질해서 밖에 나올 시간에 불 톱에 가면 누가 많이 잡고, 어디에 많이 있더라는 등 화제가 만발한다. 그리고 마을 해녀들은 노쇠한 늙은 해녀를 동정이라도 하듯 잡은 소리를 몇 개 던져주기도 한다.

도인은 생각한다. 다리가 나오면 다시 물에 들어 과거에 수없이 보았던 바다 속의 생명들을 만나겠다고.

요즘은 밤에 잠이 오지 않는다.

낮선 외딴 섬에서 물질하던 전경과, 한 많았던 과거의 삶과 행원리 바다 속 풍경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지나간다.

〈생애사를 쓰면서〉

이 글은 제주 해녀 민속 연구를 위한 일환으로 쓰여졌다. 한 시대의 삶이 민속학 연구의 한 영역이라면, 한 해녀의 일대기 속에는 민속적인 자료가 얼마만큼 반영되는가? 그리고 개인의 생애사와 민요사설과의 관계를 살피기 위한 기초자료가 되는 것이다.

남의 일대기를 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필자는 안도인 할머니를 길다면 긴 시간을 만나 왔다. 10년 전 문화재 전문위원 발령을 받았을 때, 만나서 해녀노래를 들었다. 처음 들은 인상은 노래에 담겨있는 인생의 한 그 자체였다. 그리고 2001년 12월부터 2002년 12월 사이에 집중적인 면담조사를 했다.

할머니가 부른 해녀노래 사실은 공식적인 틀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생 그대로다. 할머니의 노래는 그침이 없었고, 온종일을 노래할 수가 있을 정도로 무궁무진한 삶의 이야기를 생의 후배인 나에게 들려주는 것이다. 그러면

서 노래를 하다가도 자신의 노래에 취해 울고 만다.

너무나 가슴 뭉클하고 눈물이 쏟아 오를 것 같았지만 눈물을 차마 보일 수는 없었다.

제주도 민요 중 밧들·방아노래라든가 여자들이 부르는 노래는 인생의 고난과 슬픔에서 오는 정서 때문에, 동등한 여성의 입장에서 눈물이 돈다. 다른 지역의 민요를 들었을 때는 그렇지 않은데, 제주민요는 그렇다.

태어나고 자란 지역적인 공감대, 삶의 정서에 대한 이해, 혹은 자신의 고향 땅에 대한 무모한 애착에서 오는 생리일까?

집중적으로 할머니를 살펴면서 상당히 인간적인 미덕이 풍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남의 자식들을 데려다 아무 탈 없이 키운다거나,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 아주 인정 많고 후덕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 글은 진정 할머니 자신의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이 할머니는 글을 배울 기회가 없어서 읽어 볼 수조차 없다. 조사가 끝난 후 하루 조사 분을 전부 정리하고 오라고 신신 당부 하신다. 그 부분을 정리하고 다시 행원리로 차를 몰면 할머니는 나를 기다리고 있다. 전부 읽어 드리고 잘못 된 부분, 혹은 빠진 부분을 수정했다.

아주 기억력이 좋으셔서 자신의 삶을 구슬 꿰듯 꿰어나간다. 이 글은 할머니의 말을 글로 옮긴 것에 불과하다. 그래도 약간이라도 할머니에게 누를 끼쳐드리는 부분이 있다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싶다.

할머니 울지 마시고, 건강하세요.

2004년 정초에